문화+서울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21 11 Vol. 177

1 〈기록된 변화 시리즈〉 도자 | 가변 설치 | 2021
2 〈기록된 변화〉 디테일 컷
3 〈Canvas on the Table〉 도자 | 44×46×12cm, 41×32×15cm | 2020

이달의 표지 작가

김하경

작가 김하경은 홍익대학교 도예유리과와 조소과 학사를 졸업하고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도자를 기반으로 한 조형 작품을 제작하며 개인전 〈호접전 胡蝶展〉(예술공간 파도, 2021)과 단체전 〈스테레오 비전〉(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2020)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미국 레드랏지 클레이센터(2017),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2018), 일본 시가현립 도예의 숲 미술관(2019~2020) 등에서 입주작가로 선정됐고, 현재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착아케이드 11·12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하나의 현상은 독립적으로 발현되고 소멸되지 않는다. 한 현상은 여러 원인에 의해 파생되고 또 다른 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이 된다. 삶 역시 현상의 일부이다. 하나의 삶은 수많은 삶과 관련돼 있고, 시작되는 순간과 끝나는 순간이 가위로 자르듯 분리·구분되지 않는다. 단순히 무에서 유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또한 유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삶과 죽음은 끊임없이 얽혀 있고 만물은 연결돼 하나의 큰 유기체처럼 존재한다.

생명체같이 촉촉하고 유연한 흙을 가마에 구우면, 생명의 시간이 멈춘 듯 단단하게 굳어 지난 움직임의 발자취만 남는다. 각기 다른 장소와 시간을 거친 유약 원료들이 불과 만나 작용하던 흐름도 멈춘다. 생명의 움직임을 간직한 흙은 다양한 형태의 도자 캔버스로 표현되고, 그 위에 물감처럼 얹혀 흐르는 유약은 현상의 정지된 모습을 보여준다. 원료의 종류와 혼합 비율, 가마 속 산소량, 가마가 도달하는 온도, 온도에 도달하기까지의 소성燒成 과정에 따라 흙과 유약은 다른 색·질감·빛깔로 발현된다.

도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연구하고 결합 비율과 소성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에 집중한다. 각각의 원료가 가마에서 화학 작용하는 현상을 만물의 상호작용과 비유하며, 순환하는 삶의 찰나를 흙과 유약으로 나타낸다. 가시적으로 봤을 때 만물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듯하지만 비가시적 영역에서 모든 것은 연결된 하나의 존재이다. 작업을 통해 이런 비가시적 영역을 가시적으로 표현한다. 다양한 색과 질감으로 형상화된 세상 만물은 서로 얽혀 있기도 하고 같은 내면의 모습을 공유해 내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는 개별적 존재가 아닌 큰 순환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존재한다.

Contents

2021 11 Vol. 177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김하경

테마 토크

지금 당신은 문학을…

06 리포트 비대면 시대의 문학 축제 이모저모

08 체험기 문학 들려주는 사람들

12 에세이 1인 7역 독립 출판의 모든 것

14 현장스케치
인문학북콘서트 '인지하지 못했던 사사로운 것들'

16 스낵 문학을 즐기러 가다

사람과 사람

18 문화인 웹툰 작가 김보통

24 작가의 방 장재환 예술청 공동예술청장·장해림 작가

26 서울 찰나

28 진실 혹은 대담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 '작가들의 수다'

이슈 & 토픽

34 쟁점 어수선한 웹툰·웹소설 업계

36 화제 1 무용 교육의 미래

38 화제 2 잠실창작스튜디오 12기 입주작가 기획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김영민, 오니트(주)(이아림, 장영수)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디자인**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3 **팩스** 02-6008-7347
누리집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1년 10월 29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공간, 공감

40 공간 삼일로창고극장 〈창고개방〉

42 공감 1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와 연극 〈리어왕〉

44 공감 2 책《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와
《영 포티, X세대가 돌아온다》

SOUL OF SEOUL

46 서울 산책 경의선 공원 끝의 연남동

48 김송희의 썰(說) 〈오징어 게임〉 이모저모

50 류태형의 음악 정원 서거 120주년 맞은 주세페 베르디

52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정욱 감독의 〈좋은 사람〉

WEBZINE+

56 웹진 [비유] 다채로운 빛깔을 지닌 어린이문학 작가들

58 웹진 [연극in]
환대의 조각들 2021 〈MC.mama 팬미팅 나를 환대하라〉

60 웹진 [춤:in] 고스트그룹 김혜윤+류진욱

62 11월의 서울문화매뉴얼

68 편집 후기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에 기분이 좋아져 하하하 호호호 서로 농담하고 웃는 관광객들 중에 내가 우는 걸 눈치 챈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좋았다는 거예요, 내 말은. 아무도 내가 우는 줄을 몰라서. 여러분들도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그 길을 그렇게 계속 걸었습니다.

김연수 소설가 〈저녁이면 마냥 걸었다〉 중

그때 우리는
자정이 지나서야

좁은 마당을
별들에게 비켜주었다

새벽의 하늘에는
다음 계절의
별들이 지나간다

별 밝은 날
너에게 건네던 말보다

별이 지는 날
나에게 빌어야 하는 말들이

더 오래 빛난다

박준 시인 〈지금은 우리가〉

소소한 것, 언뜻 무용해 보이는 것. 스스로에게만 흥미로운 것을 모으는 재미를 아는 사람은 삶을 훨씬 풍부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수집가만큼 즐거운 생물이 또 없고, 수집가의 태도는 예술가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항상 다니는 길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 자신이 사는 곳을 매일 여행지처럼 경험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술가가 되니까.

정세랑 소설가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수 없어》 중

기분 좋은 말을 생각해보자. / 파랗다. 하얗다. 깨끗하다. 싱그럽다. / 신선하다. 짜릿하다. 후련하다. / 기분 좋은 말을 소리 내보자. / 시원하다. 달콤하다. 아늑하다. 아이스크림. / 얼음. 바람. 아아아. 사랑하는. 소중한. 달린다. // 비! / 머릿속에 가득 기분 좋은 / 느낌표를 밟아보자.

황인숙 시인 〈말의 힘〉 중

목적지요? 사람은 최종 목적지만 보고 달리는 자율 주행 자동차 따위가 아니잖아요. 직접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또 가끔 브레이크를 걸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제맛이죠. 유명 작가가 되는 게 전부가 아닌 걸요. 전 시나리오를 쓰면서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해안가에 도착하든 사막에 도착하든 그건 그때 가서 납득하겠죠.

이미예 소설가 《달러구트 꿈 백화점》 중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짜 재산은 추억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억은 빌려주거나 빌릴 수 없고 차압되지도 않는 오롯이 우리의 것이니까요. 최대한 많은 추억을 채집해서 향유하시기를 그 추억 속에서 어제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조해진 소설가

지금 당신은 문학을…

별은 중심 시력이 아닌
가장자리 시력으로 볼 때 더 빛난답니다.
변두리의 재발견이지요.

김중미 소설가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읽을 차례입니다.

유희란 소설가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이 시에 담겨
영영 이 시로부터 탈출하지 못한다면 좋겠다

황인찬 시인 〈그것은 가벼운 절망이다
지루함의 하느님이다〉 중

문학과 독자를 이어 주는 축제, 직접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사람들, 책장을 넘기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보는 문학 작품, 책과 작가, 음악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북콘서트, 문학 애호가들이 모이는 온·오프라인 플랫폼까지. 책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이 계절에 단풍 빛깔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문학을 만나 본다.

문학에 어울리는 계절이 따로 있진 않겠지만, 문학 축제만큼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제격이다. 실제로 서울국제도서전부터 서울와우북페스티벌·파주북소리·서울국제작가축제 등 다양한 문학 축제가 10월과 11월에 독자를 만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바깥 나들이가 여의치 않아지면서 문학 축제 또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 온라인 행사와 가상현실 전시 등 비대면 시대에 문학으로 연결될 다양한 방법을 올가을 열린 문학 축제를 통해 알아봤다.

코로나 시대, 그래도 우리는 문학으로 연결된다

비대면 시대의 문학 축제 이모저모

규모는 줄어도 문학을 중심으로 한자리에 모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은 매년 많은 독자가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국내 최대 책 축제다. 여러 출판사의 신간 도서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평소에는 만나기 쉽지 않은 저자도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할 절호의 기회다. 그랬던 도서전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 가진 못해 2020년 서울국제도서전은 모두 온라인으로만 열렸다. 지난해의 아쉬움을 달래려는 듯,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2021 서울국제도서전(9. 8~12)에는 '책덕후'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코엑스에서 열려 400여 개의 출판사가 참여하던 예년에 비하면 비교적 소규모로 열렸지만, 75개 출판사가 알차게 꾸린 부스가 아쉬움을 달래줬다.

'가을, 첫 책' 행사로 아직 출간 전 도서를 누구보다 일찍 만나 보는 즐거움을 줬고, 70년에 걸친 도서전 역사를 조망하는 '긋닛: 뉴 월드 커밍', 1963년부터 독일 북아트재단이 주최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전시 등 책을 둘러싼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했다. 실로 간만에 만나는 '축제다운 축제'였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문학 축제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온라인 만남만의 장점을 제대로 살렸다. 바로 국경의 장벽 없이 더욱 다양한 해외 작가와 국내 독자의 대화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대표하는 축제가 서울와우북페스티벌(10. 1~3)과 서울국제작가축제(10. 8~24)였다.

2005년 홍대 거리에서 시작돼 올해로 17년째를 맞은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왁자한 거리에서 한데 모일 순 없게 됐다. 대신 중국을 대표하는 SF작가 류츠신부터 프랑스의 사회학자 디디에 에리봉, 팔레스타인의 시인 자카리아 무함마드 등 평소라면 만나 보기 힘든 해외 유명 작가가 온라인상에서 한국의 독자와 만났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주관하는 서울국제작가축제 역시 마리아나 엔리케스, 켄 리우, 맥스 포터, 바네스 스프링고라 등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해외 작가 17명이 온라인을 통해 한국을 찾아 '국제' 작가 축제라는 이름을 빛냈다.

잘 자리 잡은 북페스티벌은 문학을 넘어 '문화' 축제로 기능하며 해당 지역에 활기를 더하기도 한다. 파주시와 출판도시문화재단이 2011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한 파주북소리(10. 15~17)가 그 예다. 출판도시 파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북페스티벌로, 문학 독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사랑받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 역시 '음악과 문학의 밤' '북소리 스테이지' 등을 통해

더미 인

문화와 지식을 한자리에서 나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개최하는 2021 문학주간 (9. 17~12. 10) 역시 비대면 중심의 국민 참여형 문학 축제로 거듭났다. 특히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강원 등 전국 14개 문학서점에서 15권의 도서를 선정해 전시를 개최하고 작가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문학서점 스테이지'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집중의 문학 축제에서 탈피해 그 밖의 지역과 연결을 도모했다.
11월 11일 서점의 날을 기념한 2021 서울서점주간 (11. 1~ 7)에는 서울시의 동네 책방을 홍보하고 서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60여 개 서점에서 각 서점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1월 24일 문화가 있는 날에 열리는 '동네책방 문화사랑방'에서는 지역 주민이 동네 책방을 거점으로 문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덕분에 힘든 상황에도 문학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언제나 시민에게 든든한 쉼터 구실을 하는 도서관 역시 가을맞이 문학 축제를 열었다. 서울도서관이 주관하는 서울지식이음축제(10. 22~29)부터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의 서대문 책으로 축제(9. 10~12), 서초구립도서관 연합 축제인 서리풀책문화축제(10. 22~ 24) 등이다. 명사 초청, 음악 공연, 독립영화 상영, e-책장터 등 지역 사회 내에서 도서관의 역할을 고민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도서관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문화시설이 휴관 중일 때도 택배 대출, 우편 대출, 승차 대출, 무인 대출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해 도서관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발표한 2021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덕분에 1일 평균 대출 권수는 코로나 상황에도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작은 규모지만 출판사 관계자와 독자가 오프라인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온라인에서는 평소 만나기 힘든 국내 작가부터 다양한 해외 작가와 소통한다. 각 지역 서점을 매개로 지역의 독자와 연결하고, 도서관을 통해 시민과 책을 잇는다.
코로나 시대, 암울한 상황 가운데 대면 만남은 끊기고 소통은 어려워졌지만 책과 문학은 이렇게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립에서 구해 내고 하나로 연결했다.

글 **한소범**《한국일보》기자

'즐기다'

문학 축제가 많이 열렸다. 내용을 보니 문학을 말로 전하는, 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학을 듣는 행사가 많았다. 시를 모아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고, 책을 읽어주고, 모여서 수다를 떨기도 한다. [문화+서울]의 기획자 두 명이 문학을 들려주는 콘텐츠를 찾아 체험기를 작성했다.

차분한 목소리에 스며들다

문학 들려주는 사람들

라디오로 시작하는 하루. 요즘은 아날로그 오디오보다 휴대전화 앱을 주로 이용한다.
(휴대전화 화면은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고도 아직 정신이 들려면 10여 분은 더 걸리겠지만, 좀비처럼 일어나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라디오를 켜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휴대전화의 라디오 앱이고, 10년 혹은 20년 전에는 아날로그 오디오의 FM수신 버튼이었다. 라디오 청취는 나의 오랜 습관이다. 바쁜 아침에는 이만한 시계가 없고, 고단한 하루를 잊고 싶은 밤엔 또 이만한 친구가 없다. 특히 혼자 자취를 하면서는 무료한 시간을 잊고 적막한 공기도 채울 겸 뭐든 귀에 들리는 것을 틀어놓곤 한다. 들려오는 이야기나 정보에 집중하다 보면 청소·빨래 등 집안일의 지루함과 귀찮음이 덜어지기도 하니까. 라디오뿐만 아니라 팟캐스트·오디오북 등 듣는 콘텐츠가 점점 다양해진 요즘, 보기보다 듣는 인간인 나의 귀는 바빠졌다. 수건을 개며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를 정주행하고, 설거지하는 동안 10분짜리 경제 뉴스를 들으며 세상사에 까막눈이 되지 말자 다짐한다. 집중력 거지인 나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니, 당최 듣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듣는 인간 이아림의 문학 듣는 일상

들리는 시 만세!

종종 오디오 콘텐츠 앱을 켜고 들을 만한 프로그램을 검색하며 여기저기 구독 버튼을 누른다. 당장 듣지 않아도 '마음 당길 때가 올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김새벽 황인찬의 시로 만난 세계〉(이하 '시만세')도 그렇게 '내 리스트'에 저장한 프로그램이었다. "여러 편의 시를 이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야기를 만듭니다"라는 소개 글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영화에서 주로 낮고 차분하게 말하던 김새벽 배우의 톤을 좋아했고,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황인찬 시인의 목소리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이건 꿀조합이다!' 싶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난 어느 휴일 아침, 머리는 떡졌지만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어 오디오 앱에서 '시만세' 4회를 플레이했다. 두 사람의 음성으로 시 두 편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른 10분, 나는 잠깐 다른 시간을 산 것처럼 느꼈다. 해당 회의 중심이 된 〈나의 프랑스식 엄마〉(배수연)와 〈내가 듣는 에릭 사티〉(장석남)는 전혀 다른 내용의 시였지만, 배경음악으로도 등장한 에릭 사티의 피아노곡 〈짐노페디〉와 맞물리며 하나의 새로운 오디오드라마로 탄생했다. 마치 단편영화 한 편을 본 기분이랄까. 4회 방송을 두어 번 다시 듣고 다른 회를 더 이어 들었다. 뚜렷한 서사 없이도, 동류의 주제·소재가 스민 시 2~3편이 대화처럼 엮이며 형성되는 특유의 공기가 매력적이었다. 시는 읽을 때보다 들을 때 더 잘 흡수된다는 걸 나는 여러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 있다. 막상 시집을 구입하면 열 페이지도 읽지 못한 채 책을 덮는 일이 많지만, 집중해서 '들은' 시는 잊히지 않는다. 발화되는 언어를 그대로 이미지로 떠올리다 보면 해석의 강박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서점에 들러, 시만세에서 여러 작품이 언급된 이제니 시인의 시집을 샀다. 시를 읽을 때는 늘 불가해함에 맞설 용기가 필요했는데, 들어서 좋았던 경험으로부터 산문시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됐다. 시만세 방송은 10월 현재 50회를 넘겼다. 방송을 조금씩 아껴 들으며 책장에 묵혀둔 시집들을 요즘 호기롭게 하나 둘씩 꺼내 보고 있다.

대신 책 읽어주는 오디오북

오디오 콘텐츠가 다양화되면서 오디오북 수요도 늘었다는 뉴스를 한두 해 전부터 꾸준히 접했다. 책이나 문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자주 들었지만 책 자체를 귀로 듣는 일에 나는 솔직히 반신반의해 왔다. 짧은 시나 정보성 글이라면 몰라도 호흡이 긴 소설을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수 있을지, 소설 문체의 매력을 들어서도 느낄수 있을지 당최 상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마침 자주 이용하는 전자책 플랫폼에서 일부 도서의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 작품을 골라 들어보기로 했다. 바로 알베르 카뮈의《페스트》. 결코 녹록지 않은 작품이라고 들은 바 있지만 코로나 시국 내내 숙제처럼 마음을 괴롭힌 작품이었기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만족도는 80% 정도. 여기엔 숙제를 끝냈다는 성취감이 큰 몫을 하는데, 그 성취가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고도 출퇴근길이나 자투리 시간에 가능했다는 점이 주효했다. 성우의 차분한 목소리는 집중력을 높였고, 눈으로 글자를 따라갈 때와 달리 내 생각을 더 많이 보태며 책을 들을 수 있었다. '위드코로나'를 앞둔 시점에 접한 《페스트》는 위로와 착잡함을 동시에 안기는 작품이었다. 그럼 불만족 20%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선 나는 소설에 한해서는 '읽기'에 익숙한 탓에,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언어적 아름다움을 청각으로는 섬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거라는 의심을 떨치지 못했다. 또 다른 이유는 낭독의 방식에 있다. 내가 접한 오디오북은 한 명의 성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톤으로 글을 낭독해, 다양한 등장인물이 대화를 나눌 때 종종 어느 것이 A 또는 B의 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다. 참고로 오디오북은 기계가 낭독하는 TTS[text to speech,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 기능으로도 들을 수 있는데 문학작품에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스릴 넘치는 장면에서 "빨리 와, 서둘러!" 같은 대사를 기계가 아주 밝고 스위트하게 읽는 바람에 긴장감이 와장창 깨질지도 모르니 말이다. 물론 소설의 분위기나 대사를 실감 나게 살리는 오디오북도 많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KBS 한민족방송의 〈라디오 문학관〉을 추천받았다. 한 회 50분 동안 단편소설 한 편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글의 따옴표 부분은 성우들의 연기와 효과음으로 살려낸다. 방송사 라디오 앱은 물론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서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송과 플랫폼에서 문학은 꾸준히 읽히고 재구성된다. 들을수록 더 읽고(=사고) 싶어진다는 이상한 단점에 통장이 '텅장' 되는 속도가 빨라졌지만, 각각의 매력이 너무나 분명해서 어느 하나 포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읽는 인간 ——— 장영수의 ——— 문학 듣는 일상

나는 [문화+서울]의 글을 다듬는 편집자다.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7시에 퇴근하는 일상에서 두 단어 '많은 사람들'을 쓴 많은 사람의 글을 보며 "'많은'이 이미 있으니까 '들'은 중복 표현으로 삭제해야지"라고 수십 번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금 비교적 길게 쓴 지루한 문장에 내 심정을 함축했으니 다시 읽어 속에 담긴 마음을 느껴주길 바란다.

재주가 없어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나와 달리 소설가나 시인은 대단하다. 문장 어디에도 단어 '즐겁다'가 없는데 등장인물의 즐거워하는 표정이 머릿속에 떠오르게끔 만든다. 잠깐 딴 길로 새보면, 나는 공감 능력 부족한 INTP다. 성격 유형 검사 MBTI에 따르면 INTP는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서 평범함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평범한데 평범하기 싫어하는 똥고집 정도가 적절하겠다.(물론 나를 빗댄 말이지만 동료 INTP에게 미안하지 않다. 아마 그들도 수긍할 거다.) 본론으로 돌아와,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글에 함축된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이다. 마치 자신도 직접 겪은 일인 양 안타깝고 즐겁고 무섭고 화내면서 문학작품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라디오나 팟캐스트에서 정말 재미있다며

영업당해 구매한 책들(본문에 언급한 책은 전자책으로 구매했다.)

자신이 읽은 책을 영업한다. 종이에 적힌 글을 보면 고쳐야만 직성이 풀리는 내게 나긋한 목소리로 문학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한다. 글에는 분위기와 감정이 녹아 있다고 말한다. 설득당한 나는 그들이 소개한 책을 구매하고 계좌 잔고를 알리는 스마트폰의 진동을 느끼는 일상을 반복했다. 보지는 않았다. 책도 잔고도.

책을 마음에 담은 채 떠드는 사람들

이 체험기는 근 한 달간 나를 설득한 사람들을 나열하는 글이다. 첫 번째는 라디오 방송 〈윤고은의 EBS 북카페〉에 출연하는 서효인 시인이다. 그가 10월 1일 방송 2부에서 4분 50초부터 7분 18초까지 최진영 소설가의 《내가 되는 꿈》을 소개하며 문장을 읊조렸다. "받는 사람의 주소를 쓰면서 잠깐 망설였다. 1년 후에도 지금 사는 집에 살고 있을까." 적금 해지한 돈으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으니 어느 날부터는 이 집에 자신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구절이다. 그러니까 받는 이에게 편지 보내기를 망설인다. 이후에도 낭독은 계속되지만 두 문장을 듣고 이미 내 머리는 책을 읽어볼까 생각했다. 다시 짚겠다. 마음이 아니라 머리가 앞섰다. 이런 나와 달리 서효인 시인은 말한다. "저 낭독하는데 약간 울컥한 거예요. 최진영 작가의 문장이 짧고 간결하고 일상어로 이뤄졌는데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게 있네요."

'듣다'

그가 6분 8초쯤에 목의 울림이 살짝 떨리며 "헛된 꿈같았다"를 말할 때 나는 묘한 부러움을 느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단지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 그 공감이 부러워 '최진영'을 검색했다. 그의 책을 읽으면 나도 애인의 "베란다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와"라는 말에 "창문 닫아줘?" 말고 "머리 아팠지(울음)(울음)"라고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는《내가 되는 꿈》이 아니라《해가 지는 곳으로》를 구매했다. 동료 INTP라면 청개구리 같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누가 추천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른 책 내 돈으로 샀다, 라는 심정을 말이다. 책 소개 글에 "최진영이 최초로 선보이는 아포칼립스 소설"이라기에 '바로 구매'를 눌렀다.

사실 나는 장르소설을 좋아한다. 그런데 〈라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에《씨네21》이다혜 기자가 출연해 장르소설의 고전을 소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10월 10일부터 '이다혜의 스포일러'가 새로 시작됐다. 이건 못 참지.

진행자 김겨울이 묻는다.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에서 추천할 작품 있을까요?" 이다혜 기자가 답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는 〈검은 고양이〉. 초등학교 때 비 오는 날에는 수업 안 할라고 (둘이 동시에) '선생님.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웃음)(웃음). 그래서 선생님이 〈검은 고양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듣다가 다들 놀라서 비명을 질렀던 기억이 있어요. 마지막에 일종의 반전이 있거든요."

새삼 책을 주제로 녹음 부스에서 이렇게 즐겁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 덩달아 즐거웠다. 단편은 짧으니까 전자책 구독 앱에서 찾아 바로 읽었다. 밤 12시가 지난 택시 안에서.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한동안 검은 고양이의 이빨은 볼 수 없을 것 같다. "저도 그게 늘 궁금한 부분인데요."

뜬금없이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신용목 시인이 출연한 라디오 방송 〈오늘도 읽음〉에서 한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박수를 쳤기에 먼저 언급한다. 그 부분을 조금 편집해서 옮긴다.

진행자 송정애 아나운서가 묻는다. "요즘 젊은이들이 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까요?" 신용목 시인이 답한다.

"저도 그게 늘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인이 출현하면 새로움만으로 기성 시인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패널 반응: "크~~~") 왜냐하면 시는 그대로 따라 하거나 답습하는 장르가 아니니까요. 그들이 가진 새로움 자체가 현재가 아니라 다음 무언가를 사유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유로움, 언제든 결합하고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그 태도가 부럽더라고요. 부러워서 늘 선망하고 흠모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그의 시집《비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시간에 온다》가 궁금해졌다.지금껏 느낀 게 있으니 이 시집은 온 힘을 다해 반드시 공감할 것이다. 이미 머리로 공감하겠다는 마음가짐부터가 글러 먹었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콘텐츠를 들으며 황정은《일기》, 마영신《엄마들》, 박상영《대도시의 사랑법》 등을 구매했다. 여전히 계좌 잔고는 보지 않았고, 앞으로 문학을 읽고 들을 때 '종이에 적힌 글을 읽는다' '말을 단순히 듣는다' 따위의 생각은 머릿속 휴지통에 버리기로 했다.

좋은 기회로 TBS 라디오 〈오늘도 읽음〉 녹음 현장을 방문했다.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 특집 라디오 방송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30여 명의 작가가 TBS 라디오 특집 방송에 출연했다. 서울문화재단 누리집(sfac.or.kr)에서 '문학에 물들다 오디오 아카이브'를 검색해 10월 한 달간 진행한 특집 방송을 들을 수 있다.
링크 url.kr/b8ji7t

글·사진 **이아림, 장영수** 객원 기자

문학을 한다, 책을 만든다

1인 7역 독립 출판의 모든 것

글지마 작가는 원고를 집필해 독자의 손에 책을 쥐여 주기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인쇄소는 어느 곳이 적절한지, 책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책을 매대에 올려줄 서점은 있을지 등 사소한 걱정을 모두 떠안는다. 힘겹지만 팟캐스트도 진행하며 동료 독립 출판 작가들의 이야기도 듣고 청취자에게 들려준다. 그가 독립 출판을 소개하고 글쓰기에 대한 소회를 말한다.

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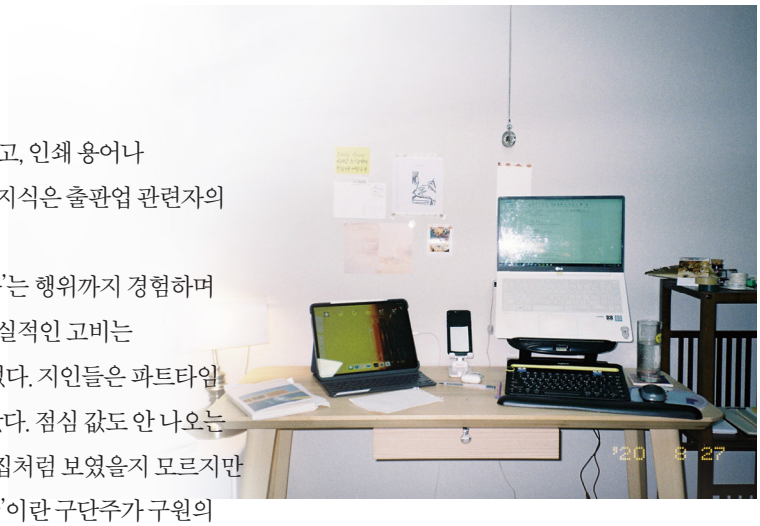
독립 출판 작가의 분투기

사람마다 인생의 버킷 리스트는 다르겠지만 한 번쯤 (아닐 수도 있지만)'나만의 책 만들기'를 꿈꿔 봤을 것이다. 나는 그 꿈을 네 번이나 이룬 점에서 어찌 보면 성공했고, 수입이 변변찮다는 이유로 모두가 뜯어말린 독립 출판을 업으로 삼은 점에서 누군가는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4년 넘게 독립 출판 시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곳 작가들이 얼마나 다채롭게 문학을 '하고'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책 만들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독립 출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수강생은 예상치 못한 업무량에 적잖이 당황했다. 독립 출판 작가는 흔히 '1인 7역'을 소화한다고 말한다. 대형 출판사가 팀으로 움직여 처리하는 일거리를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일과에 빗대어 설명하면, 나는 최소 5개월 넘게 쓴 원고를 교정교열자에게 교정을 의뢰한다. 그사이 표지를 직접 만들고 인쇄소와 조율해 인쇄 일정을 잡는다. 교정본을 전달받았다면 가독성 좋게 편집해 내지에 앉히고, 인쇄 작업을 시작한다. 그렇게 완성한 책을 판매하고자 SNS를 운영하며 책을 홍보하고, 직접 독립 서점에 입고 요청 메일을 보낸다. 이것이 한 권의 책을 출간하기까지 독립 출판 작가가 해내는 일반적 과정이다.

이렇게 할 일이 많다 보니 독립 출판 작가 중에는 N잡러본업 외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가 흔하다. 도자기 만드는 일러스트레이터, 소설 쓰는 기자, 동화 그리는 선생님 등 "아무도 내 책을 내주려 하지 않는다면 직접 만들겠다"라는 개인의 의지가 한데 뭉쳐 지금의 독립 출판 시장을 형성했다. 각기 다른 경험을 가진, 다양한 연령대의 작가가 모였으니 이곳의 분위기는 유독 다채롭다. 오늘은 또 어떤 작당 모의를 해볼까 고민하며 문학을 자유롭게 사유하고, 책을 좋아한다면 누구든 작가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독립 출판의 수용적 태도가 무척 사랑스럽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시장의 '편견 없는 문화'의 수혜 대상이었다. 2017년 겨울, 첫 번째 에세이《미국, 로망 깨기》를 내고자 나는 참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그때의 나는 영문과 출신의 '취준생'으로, 글 편집이나 인쇄에 관한 상식이 0에 수렴했다. 그렇다고 직장 선배의 노하우나 회사의 도움도 없었기에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다. 나는 독립 서점을



전전하며 사장님(출판사에서 일했던 분이 퍽 많으시다)들께 자문했고, 인쇄 용어나 용지에 대한 것은 인쇄소 기장님께 알음알음 물었다. 그래도 모자란 지식은 출판업 관련자의 강의를 통해 틈틈이 채웠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 출판 작가들은 '문학을 한다'부터 '책을 만든다'는 행위까지 경험하며 창작의 세계를 확장하는 게 아닐까. 다만 이런 자부심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고비는 매년 찾아왔다. 그중 가장 힘든 점이라면 역시 '일정치 않은 수입'이었다. 지인들은 파트타임 근무를 병행하라고 추천했지만 나는 독불장군처럼 책 주변만 맴돌았다. 점심 값도 안 나오는 적은 원고료라도 좋으니 어떻게든 글을 쓰며 수익을 창출했다. 옹고집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당시의 나는 독립 출판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만일 '월급'이란 구단주가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면 홀랑 이적할 것만 같았다. 이 힘겨운 사투에서 도망칠 게 불 보듯 뻔했다.

그럼에도 나는 글이 좋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매달리듯 글을 쓴다. 미래가 불투명해 불안할수록 더욱 원고를 꽉 붙들었다. "지금 내가 좋은 글을 쓰고 있나?" 문득문득 의심이 들지만 일단 쓴다. 방금 뱉어낸 문장의 가치를 처음부터 고민하면 별로일 게 분명한 초고는 절대 끝마치지 못하니까. 나는 출산 경험이 없지만, 한 권의 출간을 한 아이를 키워내는 것에 감히 비유해 본다. 작가는 콘텐츠를 잉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에 쓰일 종이의 종류·무게·질감, 그 위에 적힐 글자의 서체·색깔·크기 등을 고심해서 결정한다. 그렇게 정성 들여 보듬은 아이가 포장 옷을 입고, 서점에 들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까지. 내게 독립 출판은 한 명의 아이, 하나의 우주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물론 창작은 고통스럽다. 내 경험으로는 소설 쓰기가 바느질 같아서, 장면과 장면을 매끄럽게 이으려면 바늘같이 뾰족한 문장으로 수십 번 옷감을 찔러야 한다. 단어를 쓰고 지우고, 문장을 바꿔 이어 붙인 궤적이 울퉁불퉁해도 소설 한 편이 완성된다. 팔목 아프도록 고된 노동이 지긋지긋한 것과는 별개로 나는 글쓰기가 정말 좋다. 느닷없이 찾아온 '영감'님이 머릿속에 옛다 던지고 간 글감을 글자로 구현했을 때 벅찬 감동을 느끼고, 원고의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는 성취감을 잊지 못해 오늘도 글을 쓴다. 소설《달에서 내려온 전화》속 '작가의 말'에서도 밝혔듯 "이제 내게 이야기를 짓는다는 것은, 개인의 의지를 떠나 마치 신의 지시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출발선은 있어도 도착점을 알 수 없는 이 마라톤 여정을 응원해 주길 바란다.

글·사진 **글지마** 작가는 '글쓰기를 멈추지 마'라는 뜻의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에세이《미국, 로망 깨기》《불친절한 여행 에세이》, 소설《유럽 단편집》《달에서 내려온 전화》를 출간했다.

원고

묻고 사유하고 위로하다

인문학북콘서트 '인지하지 못했던 사사로운 것들'

코로나19가 삶을 한입에 삼킨 지 2년을 꽉 채워간다. 수많은 문화예술 행사가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그마저 여의치 않을 땐 취소됐다. 와중에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북콘서트가 열렸다. 노원문화재단이 꾸리고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가 주관하고 서울문화재단이 후원한 인문학북콘서트 '인지하지 못했던 사사로운 것들'이 8월부터 10월까지 총 3권의 책을 무대 위에 올렸다.

'인지하지 못했던 사사로운 것들'은 팬데믹 시대를 관통하느라 미처 살피지 못하고 덮어뒀던 주제와 이슈에 대해 작가와 평론가가 대담하고, 음악가는 그에 맞는 곡을 들려주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책을 무대 위로 소환해 말과 음악으로 한번 더 듣고 보고 사유하게 하는 북콘서트는 적극적인 탐독 방법 중 하나라 할 만하다.

총 3회차로 구성된 북콘서트의 1회차는《쇼코의 미소》를 쓴 최은영 작가와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집시재즈팩토리가 함께 '보편적인 청춘의 문장'이라는 주제로 코로나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린 청년에 관해 이야기했다.
2회차 프로그램에서는《뉴턴의 아뜰리에》를 펴낸 김상욱 물리학자와 두 대의 바이올린, 한 대의 비올라와 첼로를 연주하는 지박 & VRI 스트링 콰르텟이 함께 '경계를 넘어: 예술과 과학'이라는 소제목으로 사고를 확장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회차인 10월 12일에는《소년이 온다》《작별하지 않는다》로 알려진 한강 작가와 가수 장필순, 밴드 엔분의일이 '오늘, 다시 마주한 우리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과거의 아픈 역사와 오늘에 관해 함께 이야기했다. 그중 마지막 회차의 현장을 직접 찾았다.

글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 사진 제공 **노원문화재단**

문학, '묻다'

인지하지 못했던 사사로운 순간들

보통의 화요일 저녁, 퇴근 후 필자는 부지런히 버스를 타고 노원문화예술회관으로 향했다. 각자의 터전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로 꽉 찬 버스엔 노곤한 공기가 가득했다. 정류장에서 내려 공연장에 들어서니 버스에서와는 다른 공기가 감지됐다. 이제는 습관처럼 체화된, 건물 입구에서 실시하는 발열 점검과 손 소독을 마치고 들어간 공연장 로비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세계적 작가 한강과 오랜 시간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견고하게 이어가는 가수 장필순 등을 만나기 위해 일찍부터 걸음한 관객들로 북적거렸다. 한 손에 한강 작가의 신작을 쥐고 바쁘게 좌석의 위치를 확인하는 20대 관객부터 필자처럼 퇴근 후 종종걸음으로 찾아온 30대 관객과 친구와 함께 온 중장년 관객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문화예술 행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설레고 높은 온도의 에너지가 모처럼 반가웠다.

시작은 노원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밴드 엔분의일이 열었다. 밴드의 보컬 신성규는 "공연을 앞두고 한강 작가의 작품에 관해 몇 마디 감상을 적어보려다 이내 글을 지워버렸다"고 밝혔다. 대신 그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곡의 구성에 신경 썼단다. 이런 북콘서트가 마련된 이유도 거기에 있을 테다. 문학을 반드시 언어로만 소화할 필요는 없으며, 감상의 표현이 다양할수록 해석도 풍성해질 테니 말이다.

네 곡을 열창한 엔분의일의 공연이 끝나자 무대 밑에선 한강 작가와 허희 문학평론가가 리프트를 타고 등장했다. 북콘서트에선 쉬 보지 못했던 등장에 관객은 뜨거운 박수로 두 사람을 반겼다.

한강 작가 역시 "신작 출간 이후 여러 매체를 통해 책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독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리는 정말 오랜만이라 감격스럽다"며 인사를 전했다. 마음을 다해 반갑게 인사하고 맞이하는 자리를 만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이 또한 새삼스러운 순간이었다.

허희 평론가의 질문으로 이어가는 두 사람의 대화는 1시간이 훌쩍 넘도록 계속됐다.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 제주 4·3 사건이 배경인 신작《작별하지 않는다》까지 국가 폭력에 의한 아픈 역사를 꺼내게 된 계기부터 소설의 소재로 등장하는 콩죽과 에어컨이 고장 난 무더운 여름의 기억 등 사사로운 이야기까지, 대화의 폭은 넓고 깊었다. 마치 무대 뒤를 살펴보는 백스테이지 투어처럼 소설의 앞과 뒤, 구석구석을 작가에게 소개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북콘서트의 큰 장점이 아닐까.

한참의 대화 후엔 작가의 음성으로《작별하지 않는다》의 한 대목을 들어보는 낭독의 시간도 이어졌다. 소설에 비중 있게 등장하는 눈이 내리는 장면을 한강 작가의 음성으로 듣고 있노라면 겨울 풍경이 눈앞에 명료하게 그려지는 듯했다. 그리고 곧이어 가수 장필순이 첫 곡 〈아침을 맞으러〉를 부르며 무대 위에 올랐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소설을 쓴 작가와 제주에 자리 잡은 음악인, 두 사람의 만남과 인연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 것도 퍽 새로웠다. 장필순이 〈제비꽃〉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등 네 곡을 이어 부르며 행사는 마무리됐다. 사이사이 거리를 띄운 좌석 곳곳을 음악이 마저 채운 두 시간 반가량의 밀도 높은 시간이었다.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 무대 위에 책을 올리고 음악을 이어 듣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또 찾는 이유는 뭘까. 결국 삶과 사람에 관해 묻고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싶은 동시대인의 의지가 아닐까.

"사춘기 이전부터 붙들고 있는 여러 의문 중에 하나는 '인간이란 뭔가'라는 질문이었다"는 한강 작가는 마지막으로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던 마음을 책 속에 들어와 느껴준 분들과 이곳을 찾아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공연장을 나서며 한강 작가의 마지막 응원이 한동안 마음에 남았다. "요즘은 무탈하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다. 모두들 무탈하시라"

문학, 가다

침대에서 책을 너무 오래 읽으면 침대보가 땀에 젖어 버리거나 팔이 저려온다. 이럴 때면 나 혼자만 책을 읽는 건 아닐 텐데 싶은 생각이 든다. 문학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이렇게나 많고, 얼굴 모르는 많은 사람이 온라인에서 문학을 향유하고 있는데 말이다. 스낵에서는 서점, 온라인 문학 플랫폼, 온라인 편지를 하나씩 소개한다.

우리 같이 놀아요

문학을 즐기러 가다

문학살롱 초고

#책과_술로_사람을_만나는_공간 #언제나_서점 #칵테일≒분위기 #읽고_쓰는_사람들을_위한_아지트

문학을 읽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문학을 말하고 쓰는 공간은 드물다. 문학살롱 초고의 대표 김연지는 살롱의 의미대로 문학을 즐기러 방문한 사람들이 대화하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그 영향에 힘입어 문학살롱 초고에서 새로운 초고가 만들어지기를 바랐다. 그래서 시인을 초청해 북토크를 진행해도 시인 혼자 말하게 두지 않는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연을 모으거나 시를 작성하게 해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오프라인 행사보다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송출해 온라인으로 독자와 만난다. 10월 9일에는 소설《1차원이 되고 싶어》를 출간한 박상영 작가와 '초고 온라인 시음회'를 열었다. 소설의 등장인물 도윤도의 이름이 원래는 남윤도인데, 가수 에릭남의 본명이 남윤도라서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와 본론인 소설 이야기를 나눴다.

직접 방문한 이용객 김혜라 씨에게 초고에 오는 이유를 물어보니 "칵테일에 작품 제목을 붙여서 좋았어요(알베르 카뮈의《이방인》, 오은의《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등이 칵테일 이름이다). 번잡하지 않고 친구와 마주 앉아 술 마시거나 글 쓰거나 책 읽기 편해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답해 줬다.

주소 서울 마포구 독막로2길 30 | **인스타그램** @salon_de_chogo

글 **장영수** 객원 기자 | 사진 제공 **문학살롱 초고, 던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온라인 문학 플랫폼 — 던전

#매일_만나는_동시대_한국_문학 #새로운_용사의_등장 #무기를_드시오! #물약_지원

2개월 후에 운영을 중단할 플랫폼을 소개하자니 마음이 헛헛하다. 온라인 문학 플랫폼 던전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투고를 받아 매일 문학작품을 연재하는 곳이다. 12월 31일을 끝으로 문을 닫으며, 11월 1일부터 모든 작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작품은 시와 소설이 많고 산문과 희곡도 드문드문 있다. 던전에 작품을 연재한 작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문학상을 수상하지 않았고 어느 문학 공모전에 당선된 사실이 없으며 지인이 아니고서야 대다수가 이들이 글을 쓰는지 모른다. 던전의 운영진 박다래·박서련·서호준·이유리는 이들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자신들은 무급으로 플랫폼을 운영했다.

던전에 연재된 조우보 작가의 소설 〈행위의 역사〉에 이런 문장이 있다. "나는 오른손잡이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쓴다. 그건 내가 남긴 흔적을 보면서 간다는 것이고 무척 신기한 일처럼 느껴진다." 마치 던전을 묘사하는 문장 같다.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던전에는 작가 74명이 작성한 흔적이 남는다. 던전은 운영 중단 소식을 8월 16일에 알렸으나, 10월이 지나도 연재를 지속하는 작가가 있다. 던전의 문은 닫히지만 노력한 행위의 흔적이 역사에 남아 미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누리집 d5nz5n.com

시·문장 배달 — 문학집배원

#생활_속_작은_여유로움 #시와_문장의_전달자 #매주_목요일 #연애편지_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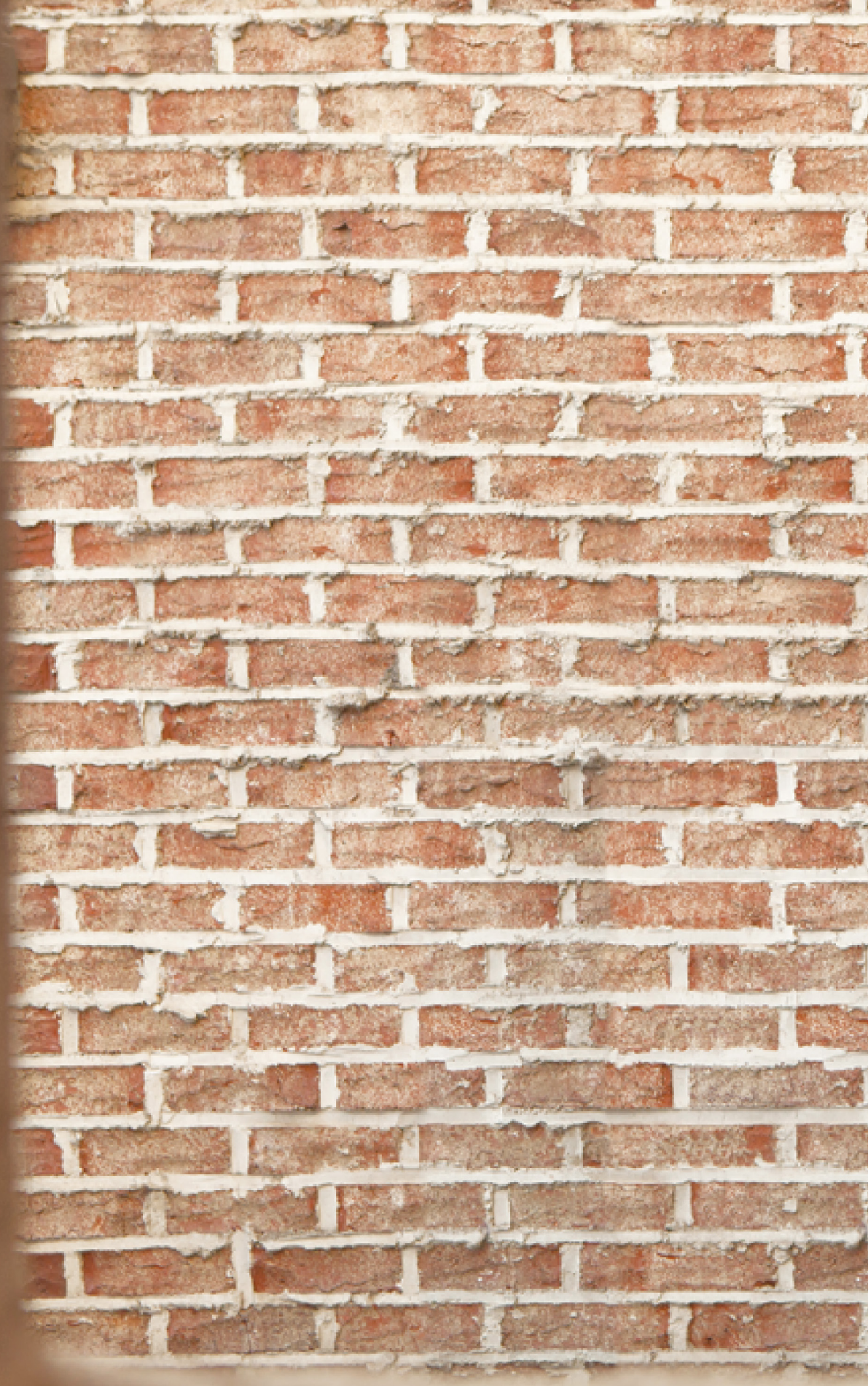
빨간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거둬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집배원을 떠올리면 정겨움이 묻어난다. 시와 문장을 배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집배원은 그 분위기를 빌리고자 대표 로고에 빨간색을 칠했다고 한다. 문학집배원은 2006년부터 시를, 2007년부터 소설의 문장을 추가해 매주 시와 문장을 번갈아가며 15년 넘게 구독자에게 메일로 전했다. 2021년 15기 문학집배원부터 조금 달라진 점은 '문장배달' 영상 콘텐츠에 낭독 배우가 등장해 연기를 한다. 소설가 김유원의《불펜의 시간》을 소개한 '문장배달'에서는 배우 공준호가 "혁오는 오랫동안 일부러 볼넷을 던져왔다"라고 녹음실에서 낭독하더니 야외로 장면이 바뀌며 야구공을 어딘가로 던진다.

역대 문학집배원은 시인 도종환·안도현·나희덕·문태준, 소설가 성석제·김연수·은희경·김애란을 비롯한 유수의 작가가 참여했다. 현재는 시인 박준과 소설가 편혜영이 집배원 역할을 맡아 매주 목요일에 시 혹은 문장, 감상평을 적어 보낸다. 소설가 편혜영은 첫 배달을 마치며 "처음으로 말을 걸어봅니다. 사소하고 고운 마음의 기척과 다정한 위로가 담긴 문장들을 배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천히 '읽을 준비'를 해주세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문학집배원 콘텐츠는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해 읽을 수 있다.

문학집배원 아카이브 asq.kr/ZSnSJh

덜 싫어하는 일에 '보통'의 마음을 담아

웹툰 작가 김보통



김보통 작가는 웹툰 작가이기 이전에 이야기꾼이다.《아만자》나《D.P 개의 날》같은 작품만 봐도 알 수 있지만《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온 마음을 다해 디저트》등 그가 쓴 에세이를 읽으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이야기꾼인지 알 수 있다. 현란한 문체를 구사하지도, 요란한 사건을 묘사하지도 않는데 소박한 일화 하나로 독자를 사로잡는다. 작가 스스로는 "볼품없는 글"이라지만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다. 군 복무 시절 탈영병을 잡는 DP근무이탈체포전담조, Deserter Pursuit 병으로 근무할 때도 탈영병 잡는 이야기로 주위를 사로잡았다는 걸 보면 글솜씨 못지않게 입담도 타고난 모양이다.

〈D.P.〉는 방관자였던 과거에 대한 참회록

웹툰《D.P 개의 날》을 드라마로 각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D.P.〉의 인기가 많아 김보통 작가는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드라마〈D.P.〉의 인기를 실감한다"면서 "국내외 언론사와 방송에서 인터뷰나 출연 요청이 많아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작가 김보통과 현실의 저를 분리하고 활동하고 있어 실생활에는 그다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D.P 개의 날》은 군 복무 시절 DP병으로 근무하며 탈영병을 쫓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다. 웹툰과 드라마에서 설명되듯 DP병은 탈영병 체포를 위해 민간인처럼 머리를 기르고 부대 밖에선 평상복을 입는다. "대체로 부유한 집안 출신의 병사들이 DP병으로 차출되는데 앞선 근무자들이 8개월 내내 탈영병을 한 명도 체포하지 못하자 '이번엔 제일 가난한 애를 뽑아보자' 해서 제가 뽑혔어요. 대학생이고 권투를 한 이력이 도움 됐죠. 사비를 쓰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던 이전 DP병과 달리 저는 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 없어서 쥐꼬리만 한 활동비를 아껴가며 굶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탈영병을 추적했습니다. 제가 잡은 탈영병은 20명 정도였는데 실적이 좋아 표창도 받았죠."

《D.P 개의 날》중 한 컷

〈D.P.〉는 유쾌한 코미디이자 흥미진진한 수사극이면서도 한편으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을 다룬 드라마이자 폭력을 방관한 자신에 대한 참회록이기도 하다. "부대 안에 있을 땐 늘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고참이 후임을 깨워 군복을 빨게 하고 전투화를 닦게 하며 잠을 못 자게 하는 일상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점호가 끝난 뒤 탈영병 발생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부당한 가혹행위에 맞서기보단 당장 면피하는 것만 바라던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D.P.〉가 공개된 뒤 한동안 논쟁이 일기도 했다. '요즘 군대에선 드라마에서 묘사된 것 같은 폭력은 거의 없다'는 주장과 '아직도 어딘가엔 변함 없이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방부까지 나서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작가의 역할은 사람들이 미처 관심을 갖지 않는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작가의 질문에 많은 이가 반응을 보이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은 제가 가장 바라던 것"이라고 말했다.

DP병 근무 경험은 그를 어떻게 바꿨을까. "어머니가 '군대 가기 전엔 말도 잘 듣고 착한 애였는데, 군대 가서 DP병을 하더니 애가 좀 이상해졌다'라고 하시더군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셨지만, 개인적으론 아무리 막연한 일이라도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깔끔히 포기하는 성격이 된 것 같아요. 핵심은 안 해봐도 알 만한 것까지 굳이 해보고 '정말 안 되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DP병 시절 경험하고 배워서였을까요? 그래서 제대 후 정말 많은 일을 해봤고 안 된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에 둔감한 사람이 된 것이겠죠."

차라리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회사원 시절을 거치다

올해로 데뷔 9년 차인 김보통 작가는 만화를 그리던 초창기만 해도 대기업을 다니다 만화가로 변신한 것으로 유명했다. 대기업 회사원 출신 만화가라니, 이 사실만 놓고 보면 학창 시절 상위권을 놓치지 않은 엘리트 학생이었을 것 같지만 뜻밖에도 문제아였다고 한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의 자리는 교탁 앞도 아닌 교탁 바로 옆이었는데 사실상 격리 조치에 가까웠다. 당시 그는 반에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유일한 아이였다. 수업 중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보는 일도 종종 있었다. 한글도 모르면서 수업 시간에 만화책을 꺼내 읽는 괴짜이기도 했다. "방앗간을 하시던 부모님이 저를 붙잡고 공부를 시킬 여유가 없으셨죠. 제 이름 석 자밖에 쓸 줄 몰랐어요. 그때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만화 잡지《만화왕국》을 사주셨어요. 허영만 선생님의《날아라 슈퍼보드》가 인기였는데 아무리 그림을 봐도 내용을 모르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덕분에 얼렁뚱땅 한글을 배웠죠. 2학년이 돼서야 글을 깨우쳤어요."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상황이 썩 좋아지진 않았던 모양이다. 중3 땐 담임 교사에게서 "넌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수 없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가지 못할 것"이란 악담을 들었고, 고등학교 땐 자퇴하란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부모의 반대로 인문계 고교에 진학했다. 그 후엔 일부러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귀여운 반항이었죠. 하지만 그림을 안 그린다고 해서 괴롭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딱히 그림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으니 아쉬운 마음도 없었어요."

김보통 작가의 웹툰과 에세이는 대체로 따뜻하고 낙천적이다. 하지만 10대 때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란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비관주의자이자 패배주의자였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사태로 부모가 운영하던 방앗간이 쫄딱 망해 암울하던 시기였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아버지의 말대로 평범한 삶을 택했다. 고교 시절 도서관근로장학생으로 일해 도서관이 친숙하다는 이유로 문헌정보학과를 선택해 대학에 진학했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곤 아버지의 바람대로 대기업에 취직했다. 집에 남은 빚을 갚고 아

> 작가의 질문에 많은 이가 반응을 보이고
>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은 제가 가장 바라던 것입니다

버지와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금융위기로 취업이 어렵던 때라 주위에선 성공했다며 축하해 줬다. 그 역시 희망찬 미래를 향해 쭉 뻗은 길을 힘차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다. 근무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도 추가 수당은 없었고, 회식에 빠지면 욕을 먹어야 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삶은 그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암이 재발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에 옮겨져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회식 자리에 나가 좋아하지도 않는 술을 억지로 마셨다. 그는 "아버지 곁을 지키지 못하고 건배를 해야 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비참했다"고 회상했다.

회사는 무자비했다. 상사 중 한 명에게선 "세상 모든 아빠는 다 죽어. 우리 아빠도 죽었어.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지. XX 새끼야"라는 막말까지 들었다. 그런데도 그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다.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걸 보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회사를 다니다 언젠가 암에 걸려 죽느니 차라리 나머지 시간만큼은 멋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가장 하고 싶던 일은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것,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뤄 다행입니다."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며 만든《아만자》로 데뷔하다

애초부터 만화가가 될 생각은 없었다. 퇴직 후 DJ를 해보려 시도했고, 작은 도서관을 차려볼까 생각했다. 로스쿨 준비도 했지만 불합격했다. 만화가가 된 건 우연이었다. 트위터를 하다 관심받고 싶어 사람들의 프로필 그림을 그려준 일이 계기가 됐다. 퇴사 1년 만의 일이었다. "당연히 잘 그리지 못했어요. 못 그리는 쪽에 더 가까웠죠. 하지만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받은 듯해요. 아무리 봐도 밥 벌어 먹고살 실력은 아닌데 계속 그림을 그리니 걱정 반 응원 반으로 지켜봐 주셨던 것 같아요. 때마침 만화를 그려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 와서 올레마켓에 연재를 시작했어요. 울며 간장 먹기였죠, 겨자보단 먹기 쉬운."

처음엔 회사원 이야기로 만화를 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릴 수 있겠다 싶었지만, 막상 그리려니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도저히 그릴 수 없었다.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랐다. "회사를 다니며 늦게까지 일하고 회식에 참석한다는 핑계로 돌아가시는 길에 함께하지 못했기에 만화를 그리면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담당자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이런 걸 누가 보겠나?" 그의 생각도 딱히 다르진 않았다. "하지만 이것 외엔 그리고 싶은 게 없었어요. 담당자는 '그러면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6개월만 그리자'라고 했죠. 연재가 처음이라 콘티도 없었고 그림 그리는 속도가 느려 대충 그리고 얼렁뚱땅 대사를 끼워 맞추는 게 다반사였죠. 무의식이었는지 초능력이었는지 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운이 좋게《아만자》를 1년간 연재하고 상도 받았습니다. 마냥 좋았죠."

청년 암환자의 병원 내 일상과 혼수상태에 빠져 겪는 환상을 때론 위트 있게 때론 가슴 아프게 그린《아만자》는 2014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부천만화대상에서 인기상을 차지했다. 한 시상식 단상에 섰을 땐 앞 열에 그의 한글 스승이 앉아 박수를 쳐주기도 했다. 만화가 김수정·이두호·장태산이었다.

《아만자》는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았다. 일본 가도카와 출판사가 현지에서 만화책으로 출간했고, 미국 인터넷 언론 허프포스트에서 연재했다. 2015년 연재를 시작한《D.P 개의 날》도 신선한 소재로 독자를 사로잡았다. 이후 익명의 고민이 담긴 질문에 대한 상담 내용을 다룬 〈내 멋대로 고민상담〉을 선보였는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고독이'는 그가 인터뷰 때 쓰고 나오는 대형 탈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들은 화려한 조명을 받진 못해도 나름의 행복을 찾으며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만자》 초기 콘티

소외된 이들을 동정이나 멸시의 대상이 아닌 주인공으로 묘사하다

김보통 작가는 사회성 짙은 만화를 그리는 게 특징이다. 군 내부 가혹행위를 다룬 《D.P 개의 날》이 그랬고,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사람의 사이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다룬 〈질풍의 노도〉도 그렇다. 이 중 〈질풍의 노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뢰로 그린 8회 분량의 짧은 브랜드 웹툰이다. 그는 이 작품도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연재를 하다 잠시 중단한 〈사람의 사이로〉는 어릴 적 사촌누나에게 들었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쓴 것이고, 〈질풍의 노도〉는 전교생이 10명 정도인 시골 분교를 돌아다니며 강연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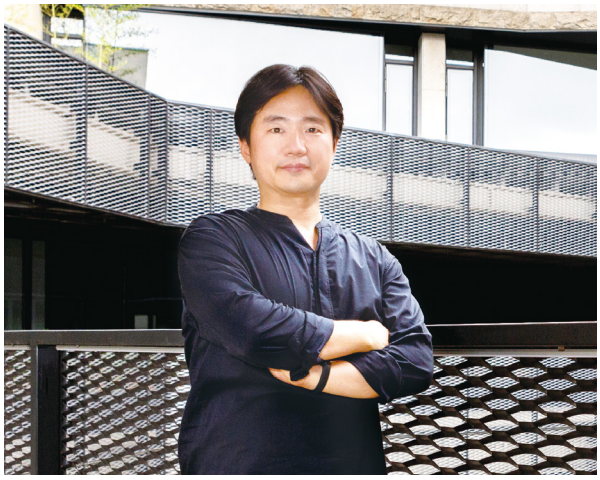
주위에 자신이 만화가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별 뜻 없이 '보통'이란 이름을 쓰게 됐다는 그는 주로 소외된 보통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는 "성장 과정에서 봐온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나고 자란 동네는 연말이면 불우 이웃 돕기에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서울인데, 서울 사람들은 서울로 치지 않는 동네였죠. 이웃사촌 중엔 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극빈층, 장애인, 이혼 가정 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한밤중에 뒷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맞아 눈에 멍이 든 채 코피를 흘리며 저희 가족이 살던 단칸방으로 숨어든 기억도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늘 불행하거나 동정받는 모습으로만 그려지죠. 그들은 화려한 조명을 받진 못해도 나름의 행복을 찾으며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명을 비춰주고 싶었고, 그들을 동정이나 멸시의 대상이 아닌 주인공으로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김보통 작가는 나누는 삶을 추구한다. '열정페이'가 일상다반사인 웹툰 업계에서 보조 작가인 어시스턴트 직원을 고용하며 명확한 근무 시간과 임금, 4대 보험은 물론 상여금과 휴가비까지 명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남는 거는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돈을 버는 만큼 직원을 늘리고 있다. 고독이 캐릭터로 벌어들인 돈도 모두 기부하고 있다.

만화를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그는 만화를 천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한다. "덜 싫어하는 일 중에서 할 만한 것이 만화"라고 말한 적도 있다. 작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진 몰라도 그의 천직은 이야기꾼이다. "가장 좋아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기"라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어온 유일한 취미 생활이 망상하기"라는 그의 머릿속엔 늘 남들에게 전해줄 이야기로 가득하다. 지금도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중엔 학교 이야기도 있고 회사 이야기도 있고 괴물 이야기도 있다. 웹툰은 물론 드라마 각본과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 있다. "특별할 것 없는 소재라 기대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작품 특유의 음울함을 좋아하시는 분에겐 그럭저럭 볼만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웹툰 외엔 뭐든지 하고 싶어요. 직원들 월급만 줄 수 있다면 정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글 **고경석** 《한국일보》 기자 | 사진 제공 **딜라이트**

융복합 예술 실험 진행 중



"틀 안에서 틀 밖의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대학로 예술청의 정식 개관을 앞두고 만난 장재환 예술청 공동예술청장은 다양한 예술 실험을 벌이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공연기획사에서 시작해 예술 지원과 축제, 예술교육 분야를 거쳐 공연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는 지난 4월 공동예술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관찰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양한 것을 묶어낼 기회"라며 소감을 밝혔다.

대학로 예술청이 주목받는 이유는 대학로에 새로 마련된 핫플레이스라는 점도 있겠지만, 3인의 공동청장을 포함해 20명의 공동운영단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크다. 하지만 서교예술실험센터와 같이 이전에도 비슷하게 운영되던 곳이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은 문화예술 공공행정에서 흔치 않은 일"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올해 초 서울문화재단이 새로운 대학로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로 발표한 예술청 운영의 큰 그림도 소개했다. "그동안 대학로의 상징인 연극계의 의견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2022년 6월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할 서울연극센터도 있기 때문에 예술청에서는 더 넓은 예술 생태계를 위한 융복합 실험이 이뤄질 겁니다." 물리적 공간보다는 예술가 주도로 진행되는 방식에 의미가 있다며 기존에 해오던 시도를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핵심이란다.

예술청이 지원본부에서 독립한 맥락도 "재단의 큰 틀인 예술지원사업은 계승하되, 그동안 예술가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개관을 앞둔 예술청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행정과 거버넌스엔 속도 차이가 있죠. 상대방을 기다려주지 못해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가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장재환
예술청 공동예술청장

장재환은 한양대에서 독문학을 공부했으며 대학원에서 문화예술경영을 전공했다. 콘서트 등 공연 기획을 시작으로 하이서울페스티벌·서울거리예술축제 등의 축제를 기획·실행했으며,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 관련 사업 영역에서 활동했다. 현재 예술청운영단장 겸 공동예술청장으로 있다.

'작가의 방'에서는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본 게시 글은《한겨레》의 〈서울&〉에 소개되는 '사람in예술'에 동시에 게재됩니다.

예술로 변신한 '낙서'

"낙서에는 즐거움, 꿈, 불안, 욕망, 압축된 경험 등 자신의 무의식이 표출돼요."

사소한 행위를 관찰하고 내면을 바라보는 데 관심이 많은 장해림 작가는 지난 9월 6~24일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 열린 전시 〈Ego Play〉(자아 놀이)에서 이렇게 소개했다. 그가 전시 주제로 정한 '낙서'는 형태의 유무를 떠나 내면에서부터 단순화해 표현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단다.

어린 시절부터 가계부와 잡지, 노트, 교회 주보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틈나는 대로 그 위에 낙서를 했던 그는 이번 작업을 위해 자신의 오랜 습관의 흔적을 일일이 뒤져서 수집했다. 모은 자료를 토대로 레이저 커팅과 3D 프린팅 같은 디지털 기법을 활용해 장인 정신이 깃든 조형 작품으로 구체화했다.

"종이에 그려진 2차원 낙서가 3차원의 공간으로 입체화될 때 우리는 짐작하지도 못한 잠재의식을 마주하게 돼요."

그는 전시를 위해 모듈과 도자 작업을 하는 주윤정 작가와 손을 잡았다. 각자의 분야에서 특화된 기법과 소재를 융합한 일상용품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여기엔 행위의 흔적이 사물로 만들어지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전시 제목으로 개설된 인스타그램(@egoplay_inandout)

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낙서를 사람들에게 받아 모빌, 화병, 식기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줬다.

무심코 그린 자신만의 끄적거림이 물체로 형상화된 작품을 받아 든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지 궁금했다. "낙서는 무의식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내면의 상태를 이해하는 수단이 됐으면 좋겠고, 더불어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글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장해림

작가

장해림은 이화여자대학교 섬유예술학과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해석의 재구성〉(2021, 김종영미술관) 〈호모 루덴스〉(2020, 갤러리 이즈) 〈무의식적 행위로서의 낙서〉(2018, 이화아트센터) 등이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2021 김종영미술관 창작지원 선정작가'(2020) '별마당 도서관 제2회 열린 아트 공모전 우수상'(2020) '14기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아카이브 선정작가'(2019) 등이 있다.

삼라만상森羅萬象 모두 짐을 꾸려 떠나는 계절
해는 저렇게 낮게 뜨고 곧 찬 서릿발 서겠다.
이제 긴 설움을 인내해야 보낼 수 있는 나날이 깊어간다.

*서울로 7017: 노후한 옛 서울역 고가차도를 개·보수해 만들어졌다.
서울로는 서울을 대표하는 사람길과 서울로 향하는 길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7017의 '70'은 서울역 고가가 만들어진 1970년을,
'17'은 공원화 사업이 완료된 2017년과 17개 사람길의 의미를 지닌다.

글·사진 **김영호**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전문위원

경계를 허물다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 '작가들의 수다'

일시 2021년 10월 10일(일) 오후 5시
사회 **오은** 시인
참가 작가 **윤고은** 소설가, 한국
이미예 소설가, 한국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Evgeny Vodolazkin 소설가, 러시아
맷 러프 Matt Ruff 소설가, 미국
공동주최 한국문학번역원,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누리집 siwf.or.kr
동영상 youtu.be/qp7RiYz5zGQ

'서울국제작가축제'는 국내 독자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이 서울을 무대로 교류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개최해 온 글로벌 문학 축제이다. 10회를 맞은 2021년 축제는 '자각 Awakening'을 주제로 10월 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렸다. 국내 작가 17명, 해외 작가 16명 등 16개국에서 33인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학 낭독 행사가 개최됐다. '작가들의 수다'는 다양한 국적을 지닌 작가들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여러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이 중 하나의 장르로 정의할 수 없는 소설에 대한 작가들의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간 '경계를 허물다' 편을 소개한다.

오은 오늘은 장르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소설을 쓴 작가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작가님들의 인사와 축제에 참여한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윤고은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거의 2년째 많은 분의 동선이 위축되고 여러 행사가 변화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멋진 이야기를 쓴 작가님들과 함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은 2013년 출간된 장편소설《밤의 여행자들》이 얼마 전 대거상CWA Dagger을 수상했잖아요. 상을 받고 기쁘기도 했지만 다른 의미로 많이 놀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윤고은 사실 수상 자체는 굉장히 즐거운 놀람이었는데요. 다른 의미로는 '추리소설에 대한 저의 생각' 같은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문학의 갈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어요.

오은 아마 추리소설인지 아닌지 하는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한 독자가 많았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이미예 작가님과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미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이미예라고 합니다. 저는 반은 소설가의 마음이지만 절반은 독자의 마음, 즐기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작가로 산 날이 짧기 때문에 독자였던 기간이 훨씬 길고 앞으로 살 날에도 독자의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책을 쓴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보니 신기합니다.

오은 얼마 전에《달러구트 꿈 백화점》두 번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성별이나 연령을 초월해서 많은 독자에게 받고 있는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했어요.

이미예 사람이 한 권의 책을 접하고 사게 되기까지 많은 우연과 선택이 필요하잖아요. 제 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이런 책을 진짜 기다려 왔다"는 깊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취향이 맞는 사람을 단시간에 아주 많이 만난 느낌이라 설레고 감사한 기분이에요.

오은 작가님이 독자였다가 작가가 된 것도 우연이 필연이 되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미국의 맷 러프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맷 러프 오늘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저는 매우 내향적인 사람인데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런 축제에 참여하는 게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멀리서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 참 좋네요.

오은 작가님의 소설《러브크래프트 컨트리》는 드라마로도 나왔는데요. 본인의 소설이 영상화된 결과물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맷 러프 먼저 상상하시는 만큼 좋습니다. 저는 영화가 책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포함해야 한다는 작가는 아니지만, 작품을 실제로 보기 전에는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마침내 작품을 직접 보게 됐을 때 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돼 정말 기뻤습니다. 각각의 사건과 등장인물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각색돼 있어서 제 이야기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은 작가님은《러브크래프트 컨트리》후속 편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맷 러프 일단 속편을 내고 싶긴 한데요. 소설을 두세 권 정도 더 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제가 글을 매우 천천히 쓰는 편이라, 출판사의 생각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쓸 가치가 있는 책은 영감을 준 아이디어를 온전히 사용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속편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에 대해 아직 할 말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더 하고 싶습니다.

오은 작가님의 독자분들은 후속 편이 나오기를 기다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이 행사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의 교류가 중

요하기 때문입니다. 문학작품은 보통 '내부적으로 쓰는 산물'이고 민족을 위해 쓰입니다. 좋은 문학은 선동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민족의 영혼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는 독자에게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TV를 끄고 신문보다 문학작품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오은 작가님께서는 수년간 고대 러시아 문학을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작가님께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저는 작가로 살면서 현대 러시아어보다 고대 러시아어를 더 많이 읽어왔는데요. 어느 날 러시아어보다 고대 러시아어의 세계를 더 좋아하는 것을 깨닫고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소설《라우러스Laurus》를 썼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현대 독자가 고대 러시아의 분위기와 음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창작자는 장르를 정하지 않는다

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권의 책을 써도 사람들마다 찾아내는 것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로맨스, 누군가는 미스터리, 누군가는 현실성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네 분의 작가님께서는 하나의 작품이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맷 러프 저는 5살 때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장르를 혼합할 수 없다고 말해 주지 않았죠. 크면서 스스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깨우쳤고, 어떤 장르나 전통을 혼용하는 것에 거리낌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첫 소설《언덕 위 바보Fool on the Hill》를 쓸 당시 저는 네 권의 소설에서 각각 다른 아이디어를 떼어 와 한 권으로 합쳤습니다. 대실패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었지만, 다행히도 저는 특이하고 다양한 줄거리를 이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야기를 쓰는 방식입니다. 운 좋게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출판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작가로 활동하며 한 장르만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책들은 서로 매우 다릅니다. 항상 제가 쓰고 싶은 대로 글을 썼습니다. 출판사의 홍보담당자들은 이런 제 방식을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웃음) 그래도 저는 아주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로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위적인 경계를 설정하지 않을 때 그 결과물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어떤 사람이 한 장르를 선택해서 그 장르의 글만 쓰는 건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장르에 다른 장르를 추가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런 예시로 러시아 문학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은 도스토옙스키의《죄와 벌》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추리소설이지만 실제로는 철학적이고 심리학적 소설입니다. 제 소설《라우러스》도 형식적으로 역사소설이지만 레르몬토프Mikhail Lermontov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제로는 '영혼의 역사'에 대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아예 책 표지에 '비역사 소설'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비행사The Aviator》라는 판타지소설은 역사, 인간의 영혼, 회개의 필요성 등 SF소설과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장르 혼합이 대단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예 저도 소재가 먼저 떠오르고 나면 거기에 살을 붙여 이야기를 만드는 편인데요.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장르를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처음 하게 된 계기는 공모전 같은 것을 찾아 보고 나서였는데요. 제가 등단을 포기했던 이유 중 하나가 어느 분야에 내야 할지 몰라서였어요. 장르는 쓰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설명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팀 버튼의 영화'라고 하면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나는 그럴 수 없으니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예상했던 판타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떨어질 수 있겠다는 공포가 있었어요. 장르는 어떻게 보면 창작자를 옥죄는 면도 있어요. 창작자는 장르에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고요. 장르가 자연스럽게 섞이면 보는 분들이 신선하게 봐주는 것 같아요.

윤고은 저도 최근에 장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한동안 유행한 MBTI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밤의 여행자들》이 지난해에 영어로 번역 출간된 이후 부여된 수식어에는 다양한 장르가 들어가 있어요. 대거상은 영국 추리작가협회에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추리 소설적 요소가 있나' 하는 시각으로 보게 됐고요. 판타지 문학상 후보에 올랐을 때는 판타지가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에코 스릴러'라는 수식어는 처음 들어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장르가 재미있는 장치, 기능을 가진 구분법으로 느껴졌죠. 또 재미있는 건 제가《밤의 여행자들》을 쓴 건 7~8년 전인데요. 공간 이동을 한 이야기지만, 다른 언어로 출간되면서 시간 이동을 한 셈이기도 하거든요. 시차가 7~8년 벌어진 상황에서 다시 많이 읽히다 보니 장르 구분에 시대 흐름이 반영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이 책은 코로나 상황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오은
시인

윤고은
소설가

이미예
소설가

오은 한 권의 책을 열 명이 읽었을 때 좋았던 부분을 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문학이 가진 매력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어요. 모든 작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자신의 이름이 장르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가들만의 소설을 쓰는 여정

오은 이제 독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품 속 인물과 관계도는 어떻게 만드는지"와 "작가님을 소설로 표현한다면 어떤 장르의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산책 나간 강아지이고 장르는 코미디 같아요. 처음 산책을 나갔기 때문에 세상이 신기하겠지만 겁도 많겠죠. 그렇다 보니 우당탕탕 여러 사건이 벌어질 것 같고, 장르는 시트콤에 가까운 코미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예 저는 소설을 쓸 때 인물 구상을 엑셀에 정리하는 걸 선호해요. 엑셀에 챕터별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엮으면서 단락의 위치를 몇백 번은 바꾸거든요. 인물들은 특정 배우의 사진이나 외모가 비슷한 만화 캐릭터를 가져오기도 하고, 옷 사진을 붙여 넣고, 대사나 하루 루틴을 적어놓거나 이름·나이, 즐겨 듣는 음악까지 하나씩 정리해 놔요. 엑셀에 정리하면 뽑아 쓰거나 고치기도 편해요. 이렇게 주변 인물들의 특성이나 제가 가진 면에서 하나씩 뽑아서 인물들에게 부여하는 식으로 다채롭게 만들려고 해요.

제 인생은 조금 밝은 느낌의 미스터리이고, 저는 그 속에서 자기가 주인공인 줄 착각하고 있는 단역이에요. 소설이 끝날 때까지 자기가 단역인 걸 모르고 뒤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배경으로만 묘사되고 끝나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있잖아요.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주인공인 것 같고 여기 나와서 얘기하니까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집에 가면 금방 잊히는 기억이거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윤고은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랑 너무 반대인 것이 많아요. 일단 저는 엑셀을 써본 게 20년 정도 전이고요. 인물 관리가 안 되는 유형이에요. 인물에 대해 떠오르는 기억을 모아두고 메모하고 옮기긴 하는데 가끔은 메모마저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 엄청난 메모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 갔다고 혹은 사라졌다고 의심하면서, 그 엄청난 조각은 늘 한 번도 작품에 넣어본 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저는 선택의 기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택의 지점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즐기면서 인물을 만드는 편이고요. 저의 장르 역시 시트콤인 것 같습니다. 오은 시인님이 출연

맷 러프
소설가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소설가

하신 시트콤에 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은 그러면 어떤 캐릭터로 등장하고 싶으세요. 저는 강아지인데 견주를 하시겠습니까.

윤고은 저는 그 옆에 첫 산책을 나온 다른 강아지로 하겠습니다. 첫 산책을 나오자마자 삐끗하고 슬랩스틱 코미디를 하는.

오은 서로 경계하면서도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다음으로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작가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등장인물의 창조는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작은 데미우르고스Demiurge, 창조자고 신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한 것처럼 작가는 단어라는 흙으로 캐릭터를 창조합니다. 캐릭터는 작가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살아나고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가 작가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살아 있으면 소설이 잘된 것이고, 영혼이 없는 자로 남아 있다면 잘 안된 것입니다.

저의 장르는 코미디·드라마·심리스릴러 등 여러 장르가 섞여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인생에 대한 작품이고 여기에 모든 장르가 반영돼 있습니다.

맷 러프 저는 엄청나게 복잡한 아이디어도 제 머릿속에서 정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등장인물과 그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가 머릿속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등장인물이 해야 할 일을 저는 알고 있지만 등장인물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장인물이 이 행동을 할 동기를 생각해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러브크래프트 컨트리》에서 1950년대 흑인 여성 레티샤는 백인 동네에서 귀신이 들린 집을 좋은 가격에 구입합니다. 그녀를 내쫓고 싶어 하는 이웃들과 그녀를 싫어하는 귀신과도 대치하는 상황에서 저는 레티샤가 이 집에 계속 사는 이유를 생각해 내야 했습니다. 하나는 당시 흑인들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집을 사기 힘들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사실은 그녀가 하나님을 자신의 영적인 보호막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집을 사길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책을 쓰며 등장인물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여러분이 마침 강아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비공식적인 제 첫 소설에 러프라는 개가 등장합니다. 매우 작은 역할이지만 그게 저에겐 일종의 카메오 출연이었죠. 제 소설에서 저는 주인공이 아닌 다른 등장인물을 지켜보는 조연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소설의 재미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작가님들이 세계관을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부연하자면 윤고은 작가님의 '무이', 이미예 작가님의 '꿈 백화점', 맷 러프 작가님의 '아덤',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작가님의 '냉동인간인데 깨어난 낯선 병원', 이 모든 공간이 이 세상에 없는 창조된 공간입니다. 이런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자연히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윤고은 저는 그냥 그 글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낯선 두 가지가 충돌하듯이 같이 웅크리고 있을 때 호기심을 느끼거든요. 《밤의 여행자들》에서 재난과 여행을 결합한 방식이죠. 호기심을 느끼고 나면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요. 그러던 중 동일본 대지진이 난 것을 미디어를 통해 봤고 그 상황에서 제 머릿속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서 무수히 많은 갈래가 마침내 어느 지점에 와서 갑자기 저를 부추기면서 쓰게끔 만드는 시기가 오는데요. 그것은 작품마다 다릅니다. '무이'라는 공간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쳤죠.

이미예 제가 '꿈 백화점'을 생각한 건 저를 위해서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사람이 잠을 자고 꿈꾸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8시간을 자기 때문에 인생의 3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저를 위해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어요. 아이디어를 생각하다 어느 시점에 가니 꿈을 사고파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만든 세계는 잠이 들면 스스로 꿈을 살 수 있는 꿈 상점이 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음으로써 제 삶이 풍성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많은 분이 공감해 주시는 걸 보면서 글로 쓰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믿어주면 제 믿음도 커지잖아요. 지금은 제가 정말 만들어낸 세계인지, 있는 것을 간접 체험하고 기억에 남은 것을 쓴 건지 혼동되는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맷 러프 저는 언제나 여러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 오래 생각하다 보면 특정 아이디어에 집착하게 되고 선택을 하는 거죠. 아이디어들이 빵처럼 구워지고 있다가 하나가 준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이야기의 3분의 1 정도는 꽤 확실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고, 어떻게 끝날지도 이미 알아요. 이야기의 마지막 줄도 미리 생각해 둡니다. 아주 확실한 시작과 끝 사이에는 굉장히 흐릿한 구간이 있습니다. 마치 안개가 잔뜩 낀 날에 산꼭대기만 보이는 것처럼요. 이야기를 쓰기 시작해 3분의 1 지점에 다다르면 안개가 조금 걷히고 더욱 확실한 이야기가 보입니다.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느 순간 저는 책의 처음과 마지막이 책의 끝에서 이어지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동안 생각해 둔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하며, 끝맺을 것을 아는 순간이 저의 가장 큰 동기입니다. 글을 쓸 때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저는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 먼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비행사》에서 한 사람이 시간적 배경으로 고립된 것을 묘사할 때 SF장르의 요소를 사용해 그 사람을 동결시킵니다. 80년 후 깨어나서 느끼는 외로움이 표현 가능한 감정으로 바뀝니다. 주제 못지않게 시점도 중요합니다. 시점에 따라 이야기의 스타일이 달라지거든요. 1인칭 이야기는 고백적이고 주관적이며 어떤 면에서 무방비한 서술이라면, 3인칭 시점의 서술자는 모든 등장인물의 생각을 알고 등장인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가는 다르다

오은 마지막으로 소설가 지망생들과 소설을 사랑하는 독자님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브게니 보돌라스킨 서점이나 축제에서 작가 모임을 자주 하지만, 오늘 여러 뛰어난 작가들이 모여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이와 같이 작가들이 비대면으로 모여 자기소개를 하고 개별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대화하는 기회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맷 러프 모든 작가가 글을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글 쓰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써야 될 것 같다고 느껴지는 주제에 대해서는 쓰지 마세요. 쓰고 싶은 걸 쓰세요. 왜냐하면 글을 쓰면서 얻는 기쁨은 이 일을 하면서 얻는 가장 큰 보상이니까요.

이미예 저는 소설가라는 직업이 사람의 인생을 낭만적으로 만드는 좋은 꿈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이야기를 아이디어로 갖고 있는 것도 즐거워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하나씩 얻어가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고요. 저도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기간이 길었지만 '나는 소설가가 될 거야'라는 그 상태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완성하는 기쁨도 그에 못지않아요. 지금 꿈꾸는 상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정해서 책임감 있게 해나가는 습관을 들여보면 그것도 굉장히 뿌듯할 거예요. 혼자만의 납기를 만들어서 해보면 좋은 경험이 되고 꿈을 이루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윤고은 저는 이상하게 한 시기에 제 책장에 있는 책을 뽑아서 작가들의 프로필을 본 적이 있어요. 작가 지망생이던 시절에 뭔가 조급했던 거죠. 대기만성이라는 말을 믿고 싶고 조급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마음먹으면서도 다른 작가들이 첫 책을 낸 시기를 찾아봤는데요. 결국 글을 계속 쓰게 만드는 것은 나만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품고 있는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은 당신 한 사람뿐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든 글로 풀어내 보여주시면 기꺼이 찾아보겠습니다.

오은 자신의 세계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확신을 가져야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작가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제공 **한국문학번역원**

급속도로 성장한 시장, 정밀한 정비가 필요하다

어수선한 웹툰·웹소설 업계

웹툰·웹소설 업계에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웹툰작가노동조합과 대한출판협회가 각각 "작가의 저작권이 다양한 방법으로 편취되고 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가져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에 국내 양대 웹툰·웹소설 플랫폼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출석해
연이어 고개를 숙일 정도로 사안이 커졌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수수료 비율, 어디까지가 적당한가

현재 웹툰·웹소설 업계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적정 수수료 비율'이다. 작가가 만든 작품은 보통 콘텐츠 공급사를 거쳐 플랫폼을 통해 독자에게 유통된다. 플랫폼과 콘텐츠 공급사는 전체 수익 중 일정 비율을 기본 수수료로 가져간다. 또 플랫폼은 특정 작품을 화면 상위에 노출하거나 수시 이벤트에 참가하는 대가로 기타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수수료 비율에 따라 작가가 전체 수익의 절반 이하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작가들은 수익 분배 과정에서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 시장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계약 당시 작가는 을의 위치에 처하고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것.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웹툰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 635명의 50.4%가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한 웹소설 작가는 "웹툰 시장 초창기 플랫폼은 작가와 직접 계약을 맺었지만 최근 콘텐츠 공급사가 중간에 합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두 단계에 걸쳐 수익을 배분하니 작가 입장에선 같은 일을 해도 수익이 더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반면 플랫폼이 마니아 시장에 치우치던 웹툰·웹소설을 대중에게 퍼뜨려 시장 자체를 키우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 웹툰 시장 규모는 2013년 1,500억 원대에서 2020년 1조 원대로 성장했다. 2013년 100억 원대이던 한국 웹소설 시장규모는 2020년 6,000억 원대로 성장했다고 추정된다. 한 웹툰·웹소설 플랫폼 관계자는 "해외 시장을 합치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해외에 한국 웹툰·웹소설을 알린 플랫폼의 공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2차 저작권 불공정 계약도 논란거리

웹툰·웹소설을 활용해 영화·드라마를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저작권 계약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 대형 정보통신IT 기업인 네이버·카카오가 웹툰·웹소설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지식재산권 때문이다. 웹툰·웹소설이 무궁무진한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본 것이다.

작가들은 계약 과정에서 2차 저작권을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만 판매하거나, 플랫폼이 2차 저작권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권리를 가로채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소유한 콘텐츠 공급사가 특히 불공정 계약을 주도했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작가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갑질 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이유다. 한 영화사 관계자는 "지식재산권IP 시장이 커지면서 2차 저작권을 처음 누가 가져가고, 수익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작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표절 논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웹툰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는 일본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 만화《몬스터》를 베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웹툰 〈엽사: 요괴사냥꾼〉도 일본 만화《귀멸의 칼날》과 유사하다는 평을 일부 독자에게 받고 있다. 혐오스러운 표현이 웹툰에 등장해 논란을 빚기도 한다. 한 웹툰 작가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데 비해 표절이나 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표준계약서 등 합리적 기준 필요

비판이 커지자 플랫폼은 진화에 나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공급 자회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에 나섰다. 네이버웹툰도 표절 논란에 대해 "창작물 연재에서 저작권 보호는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송구함을 느끼고 반성한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사실 웹툰·웹소설 업계의 문제가 널리 알려진 건 그만큼 이 시장이 성장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영향력과 시장 크기가 커진 만큼 문제가 대중의 관심을 바로 끌고 있는 것. 하지만 시장의 발전 속도에 비해 어느 수준의 수수료가 적당한지, 2차 저작권 계약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진하다.

작가들 사이에선 웹툰·웹소설 시장이 해외로 확장해 나가려면 먼저 작품의 수익 수수료를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 플랫폼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통해 인세 논란에 대응한 것처럼 웹툰·웹소설 시장에 맞는 별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웹툰·웹소설 업계는 기존 출판계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수수료, 2차 저작권 계약에 정부가 도움을 줄 방법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글 **이호재**《동아일보》기자

아이들이 예술로서 무용을 배우고 있지 않다

무용 교육의 미래

'2022 개정 교육과정' 발표를 앞두고 음악·미술·연극만 들어 있는 예술 교과에 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무용은 예술 교과가 아닌 체육 교과에 포함돼 있는데, 11번째 교육과정 개정에서 하나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인정받고 체육이 아닌 예술의 범주에 속하도록 하기 위해 무용계가 혼신을 다하고 있다.

예술 교과에 무용을 포함하기 위한 활동

지난 9월 10일 무용교육혁신위원회(이하 무교혁)는 '2021 대한민국 미래 무용교육 혁신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전국 초중등 예술 교과군 내 무용을 교과로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예술 교과의 다양성을 확보해 다수 국민이 무용 교육을 제대로 받을 권리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요 핵심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무용이 예술 교과목으로 등재되는 것이다.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문화예술에 포함돼 있지만 교육법에는 체육 분야로 규정됐다. 1955년 1차 교육과정을 만들 당시 무용을 예술로 정의하지 못하고 신체 활동으로 분리하면서 체육 교과의 한 영역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체육 수업 중 일정 비율을 할당해 수업했는데, 초기엔 비율이 30%였다가 15%로 줄었고, 지금은 그마저도 정해진 비율 없이 '표현 활동' 영역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02년, 전국 대학 무용학과·학회·협회·국공립단체 등 무용계를 대표하는 모든 기관이 참여해 무용 교과 신설을 목적으로 무교혁을 설립해 비영리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무용 교과가 단일 예술 교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 20년 가까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아직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결실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 6월에는 국가교육회의에 국민 제안을 진행했으며, 무교혁 100인 참여단을 발족해 '모든 국민은 무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다른 예술 장르는 어떤가. 음악과 미술은 초기부터 독립 교과로 인정받았다. 반면 연극은 아예 교과목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지난 2015년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예술 영역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무용계도 2003년 무용·연극 교육의 정립과 예술교육의 혁신을 염원하는 '범공연예술인 운동'을 펼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2015년에 연극만 등재됐다.

무용은 신체와 정신 동반한 창조 예술

무용은 왜 제외됐을까. 무용은 신체를 매개로 하지만 지적 활동을 동반한 창조적 표현 활동이다. 신체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상상력을 발휘해 자기실현이 가능한 예술이다. 더욱이 교육 현장에서는 신체 발달을 돕고, 정서 균형을 맞춰주는 통합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어느 예술 장르보다 전인교육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무용은 여성을 위한 예술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고, 한국무용·발레·현대무용 등 대학의 삼분법 전공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선입관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무용이 독립 교과목으로서 무엇을 가르치게 될지 알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무용계에서 제시하는 초등학교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몸동작으로 자기 소개하기, 춤으로 나누는 인사, 몸으로 만드는 도형 등 일반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다. 몸에 대해 이해하고 몸을 통해 세상을 탐구하며 몸의 가치를 깨닫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좋은 자세' '긴장 완화' '감정 표현' 외에도 청소년의 창의력을 배양하는 데 탁월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신체 표현에는 당연히 남녀 성별 구분도 없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가. 미국의 경우 예술교과에 무용·음악·연극·시각예술 등 4개 과목이 포함됐고, 1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전 교육과정을 예외 없이 이수해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예술교과가 구성됐다. 호주는 예술교과가 총 5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저학년에 해당하는 3단계까지는 공연예술과 시각예술로 나눴고, 4단계부터 미술·무용·연극·미디어·음악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저학년에서는 무용을 체육에 포함하고 있으나, 고등학교부터 무용은 독립 교과목이다. 중등교육자격시험 졸업 평가에서 무용을 치를 수 있어 대학 입학시험에 반영되는 등 제도적으로 무용 과목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국내에서 2015년부터 무용교과 교원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지만 독립 교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해 안타까운 실정이다. 2015년 무교협에서 실시한 인식도 조사를 보면 참여 교사와 학부모의 90% 이상이 무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소년의 신체 활동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교육도 왕성한데 정작 교육과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에 맞는 미래 지향적 개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1 9월 10일 '대한민국 미래 무용교육 혁신을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2 2003년 5월 28일 열린 무용교육현장 보고 및 범 무용인 결의대회

글 **장인주** 무용평론가
사진 제공 **무용교육혁신위원회**

장애예술 아닌, 예술입니다 특히 동시대 예술입니다

잠실창작스튜디오 12기 입주작가 기획전

사람은 구름을 보며 몽글거리는 아이스크림을 떠올리기도 한다. 분명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구름임을 알고 있어도 말이다.
이런 심리 현상을 일컬어 그리스어의 합성어 파레이돌리아Pareidolia, 변상증라고 한다.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Paralympic에도 쓰이는 Para는 '나란히' '함께'라는 의미를 지녔고,
그 뒤에 붙는 eidolon이 변형한 단어는 '이미지' '형태'를 뜻한다.
지금 소개하는 전시는 동시대 예술을 바라보며 '장애예술'을 떠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는다.

전시 〈나란히 함께, 이미지 형태 PAREIDOLIA〉 전경

전시 〈나란히 함께, 이미지 형태 PAREIDOLIA〉(JCC아트센터, 10. 14~11. 3)는 잠실창작스튜디오 12기 입주작가 12인의 작품 6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가 특히 흥미로운 건 12인의 작가가 아닌, 그 두 배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전시를 즐기는 팁! 쉽지는 않겠지만 잠시 리플릿은 접어두고 참여 작가가 몇 명인지 맞혀보면 좋겠다. 사전 정보가 없었다면 필자도 틀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 틀림은 발칙하게도 정교하게 설계된 듯하다. 종종 전시에서 좋은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때가 있는데 이 전시는 그 설계에 감탄하게 만든다.

2021년 장애예술에 대한 중요한 두 전시를 손꼽을 수 있다. 북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길은 너무나 길고 종이는 조그맣기 때문에〉가 예술가의 존재 증명을 위한 작가적 공력 축적을 여실히 보여줬다면 〈나란히 함께, 이미지 형태 PAREIDOLIA〉는 예술가에 대한 인식의 담론을 구성할 때 따르는 선입견을 점검하게 만들고, 비평 개념의 협소함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킨다.

전시는 2021년에 작가들이 보낸 시간에 대한 성실한 고증과 축하를 전하고, 더불어 더는 미룰 수 없는 장애예술을 둘러싼 담론을 쟁점으로 다룬다. 긴박한 쟁점이 시각화됐다고 반추한 이유는 전시 공학을 통해 전해지는 바가 있어서다. 이는 작품 선별에서 작업의 결을 일관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여러 갈래의 가능성을 준비한 결과다. 또한 작가와 작품을 각각 분리하거나 겹쳐 리듬감 있게 배치했는데 관객이 다채롭게 조우하게 만드는 작품 배치가 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 전시장 벽면을 따라 평면적으로 배열될 수도 있을 작품 배치를 가벽과 부조 형태의 박스로 덧대거나, 같은 층 전시장이나 분리된 전시장 안에서도 작품을 나눠 배치해 의미를 확장한다.

예술은 예술이다. 수식어는 선입견일뿐

전시 기획 의도에서 밝히는 파레이돌리아의 의미는 '특정 사물이나 현상에서 일정한 질서를 발견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인식 행위'다. 전시 기획자 김선옥은 파레이돌리아의 개념을 확장해 이를 이중의 의미로 해석하기를 제안한다. 첫 번째, 작가들의 작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으로 읽어보기. 두 번째, '장애예술'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인식 오류에 의문을 제기하기.

필자는 이 전시에서 다양성을 눈으로 직접 봤다. 전시가 참여 작가의

작품 세계가 지닌 다양성을 드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면 일차적으로 성공했고, 나아가 이 전시는 작가 개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의 다양성을 향해서도 우직하게 움직인다. 특히 장애예술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인식 오류를 꼬집어 말하는 데에서 장애예술에 따라붙는 비평 개념의 협소함을 환기한다.

장애예술 비평에서 자주 언급되는 언어는 강박적 반복, 원시적 표현 충동,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환상성 등이 있다. 아무리 이 개념이 사전적 정의 이상을 내포하고 정상과 비정상의 구별 짓기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통해 제시된다고 할지라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비평가의 직무 유기를 의심할 대목이다. 기획자는 잠실창작스튜디오 12기 입주작가로부터 '다원예술'을 간취해 냈다고 하는데 앞서 언급한 다원성과 포개어지는 의미라고 추측한다.

필자는 올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미술기관에서 예술인들을 만났다. 함께 사업에 참여한 작가로부터 장애인 작가에게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라고 질문하니 모두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하더라는 얘기를 들었다. "좋아하는 일에 두 가지 마음을 갖지 않는 작가님들이 정말 부럽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라는 파견예술가의 소회도 전해 들었다. "저는 아티스트입니다"라고 또렷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작가들은 이미 동시대 미술에서 자기 몫을 하고 있다. 이들의 이름과 자리를 알리는 〈나란히 함께, 이미지 형태 PAREIDOLIA〉는 이들이 누구와 함께, 어떤 이미지 형태와 함께 하고 있는지 담담하게 증명한다.

글 **김현주** 독립큐레이터 | 사진 **서울문화재단**

극장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삼일로창고극장 〈창고개방〉

남산 밑자락, 중구 삼일대로에 자리 잡은 삼일로창고극장은 1975년 개관 이후 소극장 운동을 이끌어온 역사적 가치를 지닌 소극장이다.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음에도 극장은 재정난으로 지난 2015년 폐관했고, 서울문화재단이 리모델링해 2018년 다시 극장 문을 열었다. '예술현장과 함께하는 극장' '동시대 창작 플랫폼'을 모토로 현장 예술가들과 함께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삼일로창고극장은 2018년 일곱 번째 재개관을 맞이하며 '불사조 같은 극장' '재개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같은 해 처음 시도해 관객을 불러 모은 프로젝트 〈창고개방〉을 이제는 삼일로창고극장의 대표 기획 프로그램으로 불러도 될 듯하다.

2020년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한 〈창고개방〉은 다시 극장에서 만날 날을 기다렸다. 모이는 일이 불편하고 불안한 시대에 삼일로창고극장은 다시 모이는 공간으로서 극장의 문을, 창고의 문을 연다. 2021년의 〈창고개방〉은 오래도록 극장이고 싶어 하는 삼일로창고극장의 소망을 담아 다시 한번 극장의 문을 여는 기획 프로그램이다. 극장의 문을 열기 위해, 창고의 문을 열기 위해 공연·전시·쇼케이스·워크숍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이를 통해 환대와 협력·존중을 실험하고자 한다. 2021 〈창고개방〉은 극장을 거점으로, 극장의 가능성을 다각화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놀고 싶은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개더링〉은 모임과 환대를 키워드로 극장에 모이는 일, 극장에 모으

1 2021 〈창고개방〉 포스터
2 2019 〈24시간연극제〉 현장
3 삼일로창고극장의 입구

는 일을 다각적으로 모색한 기획이다. 공연창작자 김문희가 연출한 공연 〈우주에서 살아남기〉(11.5~7, 오후 5시)와 시각예술가 고요손이 연출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 〈요한 고트프리트 친Johann Gottfried Zinn〉(11.12~14)이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공연 〈우주에서 살아남기〉는 삼일로창고극장 곳곳을 이동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전시 〈요한 고트프리트 친〉은 감정을 체화하고 기억을 수집하는 과정을 담은 시를 낭독한다.

"우리는 귀엽고, 극장의 밤을 좋아했습니다. 모이는 일이 불편해진 시대입니다. 극장은 다시 모입니다. 극장의 문을, 창고의 문을 개방하며."

가면은 필요 없어

〈부캐대전〉은 창작자·예술노동자의 본캐본래의 캐릭터가 아닌 새로운 캐릭터를 자랑하고 발견하는 장이다.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하는 본 프로그램은 예술-예술가들의 활동을 달리 보고, 자기 안의 숨은 캐릭터를 찾는다. 부캐부가적 캐릭터는 이상하고 귀엽고 재미나다. 소박하고도 유쾌한 부캐의 활약을 응원하며 극장은 소박한 딴짓을 벌인다.

문화기획자 김해리가 스토리 디렉터를 맡고, 창작자 곽혜은·김진솔·장비치·하소정이 워크숍을 진행한다. 11월 16~19일 오후 8시에 열리는 〈부캐대전〉 워크숍 프로그램은 우드카빙, 신체 트레이닝, 이야기가 있는 조향 등 서로 다른 색깔로 다채롭게 꾸며 참여자를 모집한다.

삼일로창고극장의 144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24시간연극제〉(11.16~21)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공모를 통해 모인 30명의 창작자가 6팀으로 나뉘어 24시간 만에 준비한 15분 내외의 짧은 공연을 선보인다. 제한된 환경과 주어진 시간 내 동료로서의 서로를 발견하고 다양한 창작의 씨앗을 발견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 제한된 시간과 환경에서 창작을 경험하는 색다른 시간이자, 창작자 개인이 또 다른 동료를 확인하는 만남의 자리다. 매일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온·오프라인에서 창작 결과를 내보이고, 오프라인 공연장에서 15분 내외 공연을 발표한다. 공연장에서 우리가 여전히 교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창작에 힘이 될 새로운 씨앗을 함께 찾는다.

"오늘 극장의 밤에 다시 오신 관객 여러분. 오늘 극장의 밤에 다시 오실 여러분, 우리는 귀엽습니다. 극장의 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의 극장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극장의 시간을 온전히 잘 지켜나가는 첫 번째 준비로, 함께 극장의 밤을 환히 밝혀나가겠습니다."

삼일로창고극장

주소 서울 중구 삼일대로9길 12 | **운영** 화~일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 02-3789-9640 | **인스타그램** @samilro_theatre_

글 **김주원** 배우,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 | 사진 **서울문화재단 삼일로창고극장**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한 장면

10대 주연 뮤지컬, 80대 주연 연극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와 연극 〈리어왕〉

11월 공연으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와 연극 〈리어왕〉을 추천한다. 영화가 원작인 〈빌리 엘리어트〉는 미국 토니상 트로피를 10개나 차지한 수작이다. 〈리어왕〉에 출연하는 배우 이순재는 "셰익스피어를 빌려 리더란 무엇인지 들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캄캄한 세상을 밝히는 어린 희망

〈빌리 엘리어트〉 | 2021. 8. 31~2022. 2. 2 | 대성 디큐브아트센터

2000년 프랑스 칸에서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본 가수 엘튼 존은 부축을 받으며 나갔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그는 흐느꼈다. 평범함에서 벗어나려는 주인공 빌리의 투쟁, 부모가 바라는 아들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어린 시절 자신과 닮았다고 했다. 스티븐 돌드리 감독은 그날 밤 엘튼 존이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만들자고 제안했을 때 "실현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빌리 엘리어트〉는 영국 북부 탄광촌의 한 소년이 발레를 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이야기다. 1984년 광부들의 파업과도 얽혀 있다. 이 뮤지컬은 2005년 영국에서 초연했다. 2009년 미국에선 토니상 작품·연출상 등 트로피 10개를 받았다. 돌드리는 "엘튼 존과 그의 음악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성공"이라며 "나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배우를 모아 연습하면서 이 뮤지컬만이 가진 특별함을 봤다"고 말했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춤이 탄광촌 소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여준다. 영화 〈디 아워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를 연출한 돌드리는 그 배역(빌리)을 '마라톤을 뛰면서 햄릿을 연기하는 것'에 비유하곤 한다. 어린 주연 배우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드문 작품이고, 능력의 한계까지 그를 끌어올린다.

영화는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아무 제약이 없다. 하지만 〈빌리 엘리어트〉를 뮤지컬로 옮길 땐 영화를 휴지통에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영화는 한 번만 잘 만들면 되지만 뮤지컬은 일주일에 여덟 번 공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무가 피터 달링은 남자들이 일제히 걷는 마지막 장면의 안무부터 거꾸로 작업해 나갔다.

빌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것, 그렇다고 침묵할 수도 없는 것을 춤으로 표현한다. 발레가 빌리의 목소리와 같은 셈이다. 로열발레학교 오디션에서 "춤출 때 어떤 기분인가?" 물을 때 빌리는 아버지를 생각한다. 이 뮤지컬은 빌리의 꿈 못지않게 가족과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광부들은 갱坑처럼 캄캄한 무대에서 캡램프를 켠다. 빌리는 어두운 객석 통로로 걸어나간다. '시련의 극작가' 아서 밀러는 "극에는 희망의 불꽃이 있어야 하고 등장인물 중 적어도 한 명은 사회의 진보를 믿는 낙관주의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빌리 엘리어트〉에서 빌리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탄광촌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의 동의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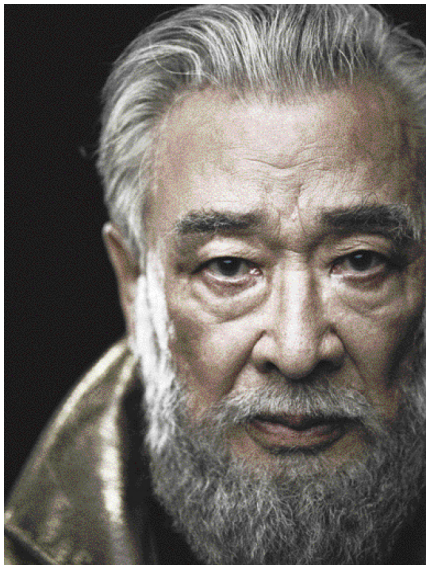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리어왕〉 | 10. 30~11. 21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배우 이순재는 무대에 설 때마다 기록을 갈아치운다. 그가 이번엔 연극 〈리어왕〉에서 주인공 리어왕을 연기한다. 인간 존재와 인생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아우르며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이뤄진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한 작품이다.

영국 배우 이언 매켈런이 "형님!"이라고 부를 국내 최고령 리어의 등장이다. 연기 인생 65년을 맞은 이순재는 1934년생이지만 여전히 쌍쌍하다. 그는 "말년에 하고 싶어 미뤄둔 필생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작품을 마침내 올린다"며 "문학적 원전을 압축하거나 비틀지 않고 3시간 20분 길이의 정통극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리어왕〉은 늙은 왕 리어가 세 딸의 애정을 시험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영토를 떼어주고 은퇴할 참이다. 그런데 두 언니의 애정 공세와 달리 막내 코딜리어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다. 리어는 오만함 때문에 그 참뜻을 읽지 못한다. 비극의 시작이다.



연극 〈리어왕〉에 출연한 배우 이순재

거죽만 보면 상속을 잘못해서 벌어지는 이야기 같다. 하지만 관객은 '진실을 보는 눈이 있는가?'라는 철학적 질문 앞에 선다. 진실과 멀어진 리어는 결국 두 딸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고 황야로 내몰린다. 점점 미쳐간다. 허허벌판에서 미치광이처럼 천둥과 번개, 비바람을 맞으며 비로소 직관을 얻는다.

이 연극은 원전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며 의상·분장까지 제대로 만든 작품이다. 단독 캐스트로 23회 공연에 모두 출연할 이순재는 "크고 작은 폭풍에 시달려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했다고 리어가 후회하는 대목이 있다"며 "셰익스피어가 당시 상류층에게 던진 메시지였는데 요즘 관객에게도 어떤 펀치를 날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연극 〈리어왕〉은 절대 권력자가 노후의 안락을 위해 나라를 딸들에게 나눠주지만 결국 딸들에게 쫓겨나 버림받고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리어왕은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 모름지기 리더는 자기가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의 고충을 안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글 **박돈규**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 사진 제공 **(주)신시컴퍼니, 극단 관악극회**

갈등 아닌 공존 위한 세대 담론을 기대하며

책《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와
《영 포티, X세대가 돌아온다》

올 들어 세간에 가장 많이 회자된 용어를 꼽으라면 'MZ세대'를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MZ세대에 대한 지나친 조명은 한편으론 부작용을 낳았다. 이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대가 홀대받는 현상이 나타났다. 세대 담론의 목적은 갈등 유발이 아니다. 모든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10대와 40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책 두 권을 소개한다.

진정한 차세대 권력, Z세대

《결국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 김용섭 지음 | 퍼블리온

MZ세대는 1982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Z세대를 합친 용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1982년생은 마흔을 눈앞에 뒀고, 2012년생은 초등학교 3학년이다. 과연 이들을 한데 묶어 같은 세대라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책의 저자인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은 MZ세대라는 용어에 대해 기성세대의 편의주의적 세대 구분이라고 말한다. 세상의 변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세대 구분의 결과라는 것이다.

저자는 MZ세대를 조금 더 세분화한다. 밀레니얼 세대를 전기(1982~1989년생)와 후기(1990~1996년생)로 구분하고, Z세대도 전기(1997~2003년생)와 후기(2004~2012년생)로 나눈다. 이 중에서 이미 X세대에 어느 정도 동화된 '전기 밀레니얼 세대'와 아직 어린 '후기 Z세대'를 제외한 중간의 1990~2003년생을 '코어 MZ세대'라 부르면서 이들이 기존 질서에 균열을 내고 있는 '요즘 젊은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코어 MZ세대'의 시대가 가고 바야흐로 '전후기 Z세대'가 젊은 세대의 정중앙에 서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Z세대에게 공정은 정의가 아니라 생존이다. 밀레니얼 세대도 어느 정

도 그렇지만 Z세대는 공정에 굉장히 민감하다. 현재도 이들은 학교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편이다. 이들은 전체 세대를 아울러 가장 개인주의적이고 가장 자본주의적이다. 성 정체성이나 인종, 국적 다양성에는 관대하고, 환경 윤리에는 진중하다. 각종 전자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이들은 로봇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첫 세대이기도 하다. 요즘 각광받는 메타버스에서도 벌써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온라인에서 다양한 연대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생활의 일부다. 이런 특징에 따라 Z세대는 향후 새로운 형태의 정치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X세대가 '라떼'를 좋아한다고요?

《영 포티, X세대가 돌아온다》 | 이선미 지음 | 앤의서재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요즘 애들' 소리를 듣는 새로운 세대는 늘 존재했다. 하지만 '신세대'라는 소리를 제대로 들은 첫 집단은 X세대다. 책은 X세대를 1970~1979년생으로 정의하면서 이들이 가진 공통적 경험과 특징을 설명한다.

X세대는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안정기를 누리며 '내 방'을 갖고 자란 첫 세대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주의 세대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대중문화 르네상스를 이끌었고 자유분방한 패션을 처음 즐겼다. 40대가 된 현재도 이들은 '난 나야'란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무장한 윗세대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외치는 아랫세대 사이에서 어찌할 바 모른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후 "하라면 해"라고 일방 지시를 내리는 선배에게 업무를 배웠지만 이들에게 배운 방식을 후배들에게는 결코 써먹을 수 없다. 까딱했다간 "퇴사할래요"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팀원들을 대신해 조용히 야근을 하고 만다. 사회적 목소리도 잘 못 낸다. 흔히 586세대로 불리는 윗세대는 독재에 대항하며 집단 연대를 한 경험이 있다. 아랫세대는 SNS를 통해 물 흐르듯이 연대하는 데 익숙하다. 반면 X세대는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라떼는 말이야' 타령을 한다고 후배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더라도 발끈하기보다는 조용히 입을 닫는 쪽을 택한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영향력까지 작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거대한 소비자 집단이자 유권자 집단이다. 세상은 MZ세대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회 여러 분야에서 주도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문화 콘텐츠 제작자, 인플루언서, 경영자 등에 X세대가 다수 포진해 있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선 X세대와 관련해 재미있는 현상이 종종 포착된다. MZ세대를 겨냥한 프로모션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X세대다. MZ세대만 반응하는 트렌드는 존속 기간이 짧은 반면 X세대까지 호응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메가 트렌드가 된다. 저자는 수면 아래서 판을 움직이는 집단이 X세대라고 말한다.

게다가 X세대는 Z세대의 부모 세대다. 미래 권력이 될 Z세대와 이들에게 어른 역할을 하는 X세대가 서로 더 잘 이해한다면 향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미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글 **정영현**《서울경제》기자 | 사진 제공 **퍼블리온, 앤의서재**

경의선 공원 끝의 연남동

마포 공덕부터 이어지는
경의선 숲길의 가장 끝은 연남동이다.
공원 끝의 굴다리를 건너가면
서대문구로 바뀌고,
산책로가 딸린 홍제천이 죽 이어진다.
홍제천과 경의선 숲길은
산책은 물론 운동을 하기에도 좋아서,
저녁이면 매일 주민들이 와글거린다.
한적한 숲길 끝의 가족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노부부,
어느새 자리 잡은 다코야키 트럭 주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붐빈다.
정겨운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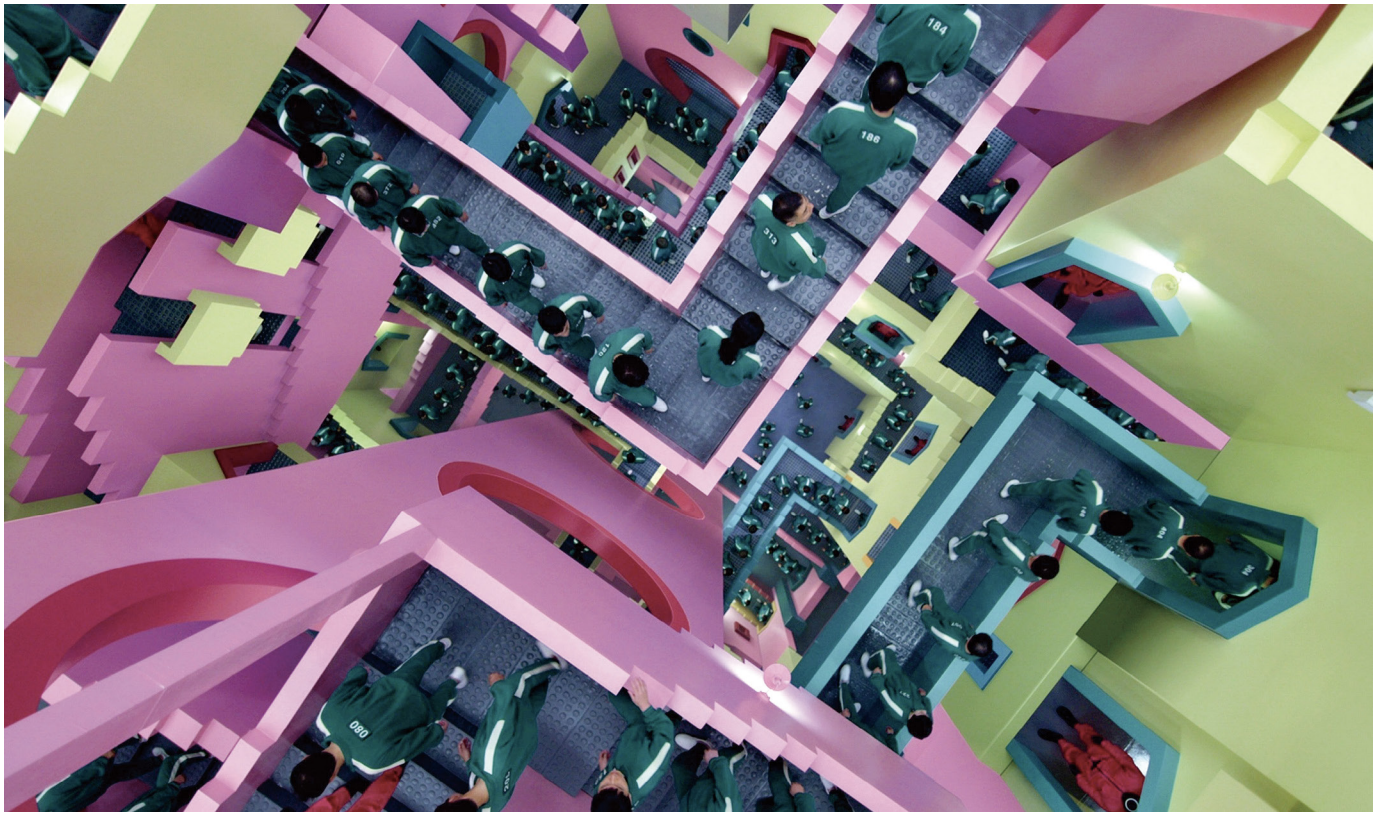
글·그림 **반지수** 일러스트레이터

왕타코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모저모

한국에서 현재 가장 많이 회자되는 콘텐츠는 단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다. 시청률이나 화제성·파급력 부분에서 압도적이다. 무엇보다 〈오징어 게임〉은 해외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라 인기 요인, 잔인한 장면과 선정적 요소에 대한 비판, 각본에서 엿보이는 레퍼런스 등 극 내용을 분석한 글이 넘쳐난다. 이러한 이슈는 한차례 지나간 해일과 같으니 여기서까지 깊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 장면

나는 〈오징어 게임〉을 결말까지는 못 봤다. 그러니 이 칼럼이 기존 〈오징어 게임〉 리뷰와 차별성이 다소 있다면 그 드라마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의 글이라는 점이다. 이 시리즈가 내게 인상적인 것은 예고편만 봐서는 볼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조차 어쩔 수 없이 보게 만드는 현시점의 분위기다.

넷플릭스는 공격적 투자로 평균적으로 분기마다 새 오리지널 시리즈(드라마)를 2~3편 정도 제작하고, 각 시리즈가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공개 시점에 간격을 둔다. 8월 27일에는 〈D.P.〉가 공개됐고 이 시리즈 역시 한국 넷플릭스에서 톱

1위를 차지했다. 군대 내 폭력을 소재로 한 현실성 짙은 이야기가 비평과 화제성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때, 9월 17일 〈오징어 게임〉이 공개됐다. 〈오징어 게임〉에 대한 비평은 〈D.P.〉보다는 호불호가 갈렸다. 일본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와의 유사성, 여성 캐릭터(극 중 한미녀)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SNS와 연예 뉴스를 달궜다. 자극적 장면과 빠른 스토리 전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다"는 반응도 다수였는데, 욕을 먹든 찬사를 받든 드라마가 세간에 오르내리는 일은 호재다. 더 크게 반응이 터진 것은 시리즈 공개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 최초로 넷플릭스 북미 1위를 차지했고, 이후 이 드라마를 둘러싼 해외 시청자의 폭발적인 관심은 이 짧은 지면에 다 옮길 수 없을 정도다.

〈오징어 게임〉이 이렇고 저렇고 요렇대

10월 13일 기준으로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1억 1,100만 구독 가구가 시청했으며 이는 넷플릭스 역대 흥행 1위인 〈브리저튼〉의 기록을 깬 수치다. 팬데믹 시대에 콘텐츠 시장 중심에 있는 넷플릭스에서 세계 1등을 먹어버린 것이다. 서양인이 달고나를 만드는 영상이 틱톡에 올라오고, 독일 거리에서 딱지를 치는 영상이 SNS에 공유됐다. 멕시코의 한 지역에서는 〈오징어 게임〉 초대장을 패러디해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발송했고, 미국과 호주에서는 저학년이 〈오징어 게임〉을 모방하지 않게 가정에서 넷플릭스 시청을 지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도 한다. 또한 로이터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대히트 후 언어 학습 채널 두오링고에 한국어 학습을 신청한 신규 사용자가 영국 76%, 미국에서 40% 증가했다고 한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고,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핫100에서 1위를 할 때에는 특정 작품과 아이돌의 '특수한' 경우로 인지된 것이 〈오징어 게임〉에 이르자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뭐가 있긴 있구나' 싶은 경지에 올랐다. '국뽕'에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드라마의 뒷이야기까지도 '드라마틱'하다. 10년 동안 투자받지 못한 황동혁 감독의 각본에 넷플릭스가 과감하게 투자했다, 제작사 싸이런픽처스는 직원이 1명 있는 작은 회사이고 김지연 대표는 소설가 김훈의 딸이다, 넷플릭스는 시리즈가 성공해도 제작사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아 한국 드라마로 넷플릭스 좋은 일만 시켜줬다는 등의 뉴스가 넘친다.

나는 〈오징어 게임〉을 끝까지 보지 못했고 '글로벌' 감각으로 한국 영상산업의 미래를 내다볼 능력도 없다. 다만 이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확산되고 각종 소비 지향적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방식이 현시대를 대변하는 게 신기해 그 순서를 되짚어 볼 뿐이다. 넷플릭스에서는 언어장벽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 한날한시 전 세계 구독자가 같은 콘텐츠를 보고 매료될 수 있다. 시청자들은 곧바로 2차 패러디 영상과 밈meme을 제작해 틱톡과 유튜브에 전파한다. 개발자들은 드라마에서 영감 받은 게임과 앱을 제작해 앱스토어에 업데이트하고, 인스타그램과 스노우에서도 패러디 필터를 제작한다. 브랜드에서는 오징어가 들어가는 각종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내놓고 광고에도 드라마 유행어를 활용한다. 치킨·과자·스포츠웨어 브랜드는 드라마 속 기호 ○△□를 이용해 제품을 만든다. 이 돌풍에 힘입어 넷플릭스 역시 직접 티셔츠를 제작해 핼러윈 시즌에 맞춰 판매한다. 이제 이 드라마를 보지 않고서는 친구들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SNS 피드를 따라갈 수 없다. 절대 보고 싶지 않던 사람조차 온·오프라인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드라마를 보고 한 마디씩 얹는다. 인기 순위는 더 올라가고 컬래버레이션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린다. 이 모든 게 한 달 사이에 일어났다.

모두 한곳만 보는 세상은 징그럽지 않나

그런데 이 '반응'이 콘텐츠 성공 이후에 생긴 자연 발생 효과가 아니라 기획할 때부터 염두에 둔 것이라면? 드라마를 이용해 게임을 하고, 연관 상품을 제작하도록 사전에 게임 기호를 디자인한 것이라면? 시청자가 밈을 제작하기 용이하도록 유행어가 될만한 대사와 인형 가면을 클로즈업으로 강조한 것이라면? 드라마 회당 몇 분 몇 초에 일어날 감정의 연쇄작용 역시 섬세하게 계획된 것이라면? 과대망상일까?

기획·연출·음악·조명·미술 등 각 분야가 훌륭하게 분업화된 한국 제작 지형에서 뛰어난 가성비로 매끈하게 제작돼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간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우리의 현재를 조금은 암담하게 담고 있다. 어떤 이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이제 모두가 한국 콘텐츠를 주목할 것이고, 제작사와 배우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성공은 시장을 확대하기는 하되 여전히 가성비와 소비재 위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다. 또한 부가 상품으로 이토록 높은 수익을 올렸으니 이후 제작될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의 공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 '오징어 게임'은 무엇이 될까. 일단 11월에는 넷플릭스에서 연상호 감독, 유아인·박정민 주연의 〈지옥〉이, 12월에는 배두나·공유 주연의 〈고요의 바다〉가 공개를 앞두고 있다.

글 **김송희** 《빅이슈코리아》 편집장, 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넷플릭스**

피 냄새 나는 운명을 살 오페라 거장

서거 120주년 맞은 주세페 베르디

TV 드라마나 길거리에서 들려와도 알아차릴 오페라의 선율이 있다. 〈여자의 마음La donna e mobile〉 〈축배의 노래Brindisi〉 같은 아리아. 다름 아닌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의 작품이다. 서거 120주기를 맞아 베르디와 그의 작품을 알아본다.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주세페 베르디 동상 ©John Samuel

베르디는 1813년 이탈리아의 파르마 부세토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작은 식료품 잡화상을 했는데, 교육을 받지 못해 거의 문맹이었다. 그럼에도 베르디는 7세 때 오르가니스트 피에트로 바이스트로키에게 음악의 기초를 배웠다. 9세 때는 스승을 대신해 미사에서 오르간을 연주했다. 그렇지만 그의 유년기는 다른 천재 음악가와 달리 특출나지는 않은 편이었다고 전해진다. 평범한 재능을 지닌 베르디는 1839년 밀라노 스칼라 극장의 제의를 받아 첫 오페라 작품 〈산 보니파치오의 백작 오베르토〉를 상연했다. 그의 두 번째 오페라 작품인 〈하루만의 임금님〉을 작곡하는 동안 베르디는 운명의 힘과 좌절을 체험한다. 두 아이가 숨을 거두고, 작품을 완성할 때쯤 아내마저 뇌염으로 생사를 달리한다. 게다가 힘겹게 무대에 올린 〈하루만의 임금님〉은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초연 하루 만에 작품을 내리게 돼 베르디는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는 게 운명의 마력일까. 스칼라 극장의 지배인 메렐리가 베르디를 설득해 성서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 〈나부코〉를 작곡하도록 했는데, 이 작품으로 베르디는 성공을 거뒀다.

이후 베르디는 1901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6곡의 오페라를 작곡했고, 오페라 외에도 현악 4중주곡, 종교음악·칸타타·중창곡·가곡 등을 수없이 썼다. 보편적 인류애에 관심 있는 휴머니스트였고, 인간성을 오페라로 표현하는 데 최고봉인 베르디는 이탈리아 전통 오페라를 계승해 성악 위주로 작곡했다. 베르디는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오페라를 썼다.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아이다〉 등 주로 무대에 오르는 스탠더드 레퍼토리가 15~20개. 그의 작품이 없었다면 세계 유수의 오페라극장 시즌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정도라는 농담은 진짜처럼 느껴진다. 베르디의 오페라는 세기를 뛰어넘어 유구한 생명력을 자랑한다.

걸작으로 승화한 부친 상실의 시대

오페라는 16세기에 생겨났다. 베르디 이전의 오페라는 흔히 보는 드라마처럼 사랑하는 남녀 주인공 사이에 다른 남자나 여자가 가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베르디의 오페라에서는 어떤 작품보다도 '아버지'라는 존재가 부각됐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풍성하고 낮게 깔리는 바리톤이 담당했다.

베르디에게는 일생 동안 세 명의 상징적 아버지가 있었다. 생부인 진짜 아버지가 첫째이고, 어린 시절 성당의 신부가 두 번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음악적 성장을 도왔고, 훗날 장인이 된 후원자 안토니오 바레치를 세 번째 아버지로 꼽는다.

어린 시절 베르디가 다니던 성당 신부는 걸핏하면 베르디에게 손찌검을 했다. 신부를 싫어한 베르디는 "벼락을 내리셔서 신부님을 없애주세요"라며 저주했다고 한다.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어느 날 폭풍우 치던 밤에 신부는 성당에 떨어진 벼락에 맞아 사망했다. 베르디에겐 크나큰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다.

세 번째 아버지인 안토니오 바레치는 베르디의 고향 부세토의 유복한 상인이자 음악 애호가다. 베르디의 재능이 마음에 든 바레치는 베르디를 부세토의 중학교에 진학시키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며 상점 일을 시켰다. 또한 부세토 시립 음악학교 교장 페르디난도 프로베지에게 본격적으로 작곡을 배우게 배려했다. 베르디는 바레치의 딸 마르게리타와 결혼했고,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고 장인어른이 된 바레치 앞에서 친아버지의 존재감이 옅어졌을 것이다.

운명은 인간을 가만두지 않는다. 베르디는 아들과 아내 마르게리타를 차례로 잃고 나서 얼마 후 소프라노 주세피나와 사랑에 빠진다. 새로운 사랑 앞에서 장인 바레치는 남남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됐고, 결국 베르디는 친아버지와 신부, 장인이란 세 아버지를 잃는 '상실의 시대'를 겪었다. 아버지란 존재는 베르디에게 떨칠 수 없는 평생의 화두가 됐다.

베르디의 작품 중 〈라 트라비아타〉에서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자 주인공 알프레도가 파리의 코르티잔Courtesan, 부자를 상대하던 창부 비올레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 제르몽이 둘 사이를 반대하면서 이야기는 비극이 된다. 제르몽은 자수성가형 부르주아였다.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 아들의 사랑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다. 쉽게 상처받는 비올레타는 제르몽에게 딸처럼 대해 주라고 말하지만 끝내 제르몽으로부터 버림받는다.

〈리골레토〉 역시 아버지와 딸의 비극을 그렸다. 죽게 되는 질다의 아버지가 리골레토다. 아버지 리골레토는 만토바 공작의 호색적 성격을 부추겨 그를 타락시키지만, 질다가 만토바 공작에게 납치돼 능욕당하자 복수를 다짐한다. 그러나 살인청부업자 스파라푸칠레에게 건네받은 자루에는 기대한 만토바 공작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 질다가 있었다.

이렇게 '아버지'는 베르디의 수많은 걸작 오페라에서 비극의 한 축을 담당한다. 부친 상실의 콤플렉스는 베르디의 창작욕으로 승화돼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계승하며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 또한 베르디가 타고난 운명이었을까.

글 **류태형** 음악 칼럼니스트
사진 **WIKIMEDIA COMMONS**

가면의 민낯

정욱 감독의 〈좋은 사람〉

사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표정 변화를 멈추고, 진심을 가려야 하는 때를 매일 매 순간 만나기 때문이다. 가면 뒤에 가려진 진심을 찬찬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작 가면을 벗으면 보이는 얼굴은 어쩌면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상한 일이다. 선입견을 깨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TV 프로그램에 나와 노래를 불렀다는 한 가수의 기묘한 이야기가 묘하지 않다. 민낯이 아니라 가면이 본심에 가깝다는 아이러니, 그러니 진짜 얼굴이, 그 표정이 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자신도 모를 일이다.

너는 나와 다르냐는 질문

친절한 말투와 선량한 표정의 고등학교 교사 경석(김태훈)의 반에서 지갑 도난 사건이 발생한다. 담당 반 학생 세익(이효제)이 범인이라 의심하는 경석은 그를 불러 어떤 말을 해도 믿을 테니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한다. 세익은 자기는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날 밤 학교에 데려왔던 경석의 딸 윤희(박채은)가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정황으로 미루어 경석은 세익을 다시 의심한다.

희한한 일이다. 스스로는 온전히 자신 마음의 주인인 것 같지만, 마음은 시시각각 바뀌는 표정처럼 순식간에 주인을 바꾼다. 스스로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 정의로운 체하지만, 가면을 벗겨낸 민낯은 늘 가장 비열한 표정을 끝내 감춘다. 하지만 양심이라는 강직한 마음의 표정과 죄의식은 마음을 등지더라도 쉽게 감춰지지 않는다.

'선의'라는 명사에 따르는 동사는 '주다'가 아니라 '베풀다'이다. '베풀다'가 내포하는 것이 희생·포기·관용이라는 점에서 타인에게 선의를 요구하거나 바라는 일이 쉽지 않다. 정욱 감독의 장편 데뷔작 〈좋은 사람〉은 선의를 가장한 표정과 삶이 지긋지긋한 진짜 표정 사이의 간극에 대해, 좋은 사람의 표정과 사실은 나쁜 사람에 가까운 가면 뒤 민낯, 어떤 것이 진짜 '나'인지에 대해 계속 되묻는다.

경석의 시점과 경석의 마음을 따라 진행되는 이야기라 사람 좋은 표정 뒤에 숨겨둔 어두운 눈빛과 칼바람을 맞은 민낯을 시시각각 바꿔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주인공의 연기가 영화의 절반 이상이다. 김태훈은 질문을 꾹꾹 눌러쓴 시험지 자체가 돼 계속해서 관객들에게 되묻는다. "너는 나랑 좀 다른 사람인 것 같냐. 보암직도 하고 믿음직도 하게."

너는 나와 같을 거냐는 질문

진실에 관한 질문의 답은 꽤 장황하고 길게 풀어야 하는 복잡한 방정식 같다. 반면 〈좋은 사람〉이 진실을 대하는 방식은 날카롭고 짧다. 선의와 진심, 진실과 거짓 사이의 딜레마를 파고들어 분석하는 방식 대신,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이 말려든 사건에 동참해 답안을 숨겨둔, 혹은 답안이 없는 질문지를 계속해서 들이민다.

과연 늘 선의를 우선 드러내는 경석은 좋은 사람인가? 경석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좋은 선생 같지만, 실제로 어떤 일에도 책임지지 않는다. 도난 사건도 사비를 털어 무마하려 하고, 파탄이 난 자신의 가정과 그 사이에서 괴로운 아내와 딸의 마음은 언제나 외면한다. 그런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 술에 빠졌고, 헤어나지 못한다. 진짜 민낯인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무서워서 외면하는 듯하다.

묵직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품었지만, 세익을 둘러싼 의심과 사건의 미스터리를 팽팽하게 당겼다 푸는 연출 덕분에 끝을 향하는 시간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다. 사실 모두가 선한 사람이기 힘들다. 언제나 좋은 사람이려면, 누군가는 계속 악역을 맡아줘야 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의 마지막 질문은 "너를 위해 악역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닐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이다. 선명하게 찍힌 질문 아래 마음의 종이가 거칠다. 그래서 누구도 매끈하게 답을 써 내려가기 어려울 것이다.

〈좋은 사람〉(2021)
감독 정욱
출연 김태훈(경석 역), 이효제(세익 역), 김현정(지현 역), 김종구(형섭 역), 박채은(윤희 역)

글 **최재훈** 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나는 아팠고, 어른들은 나빴다》 등이 있다.

LINK

서교예술
실험센터

김민주
김재연
김지원
남은혜
류민지
류정문
미트크리에이터즈
박정서
박진영
신효진
윤정현
이승연
이희단
임기택과
임이환

장우주
전규연
정서인
정수
조수영
최연우
하나경
홍승택

LINK-ING

공(共)성장형 창작지원사업 LINK 결과공유회
2021.10.16. 토 - 12.1. 수 @서교예술실험센터 외
문의 02-333-7217

Webzine+

비유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sfac.or.kr/literature

연극in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sfac.or.kr/theater

춤:in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sfac.or.kr/dance

다채로운 빛깔을 지닌 어린이문학 작가들

웹진 [비유] 46호 포스터

지난 10월 특별한 기획으로 창작 지면이 채워졌다. 동시와 동화를 모두 쓰는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어린이문학 특집이었다. 김유진 편집위원은 "한 작가의 동시와 동화를 함께 읽으면 그가 이야기하는 세계를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세계가 각 장르의 스펙트럼을 거치며 펼쳐지는 다채로운 빛깔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라고 기획 의도를 밝히며 주미경·이상교·이창숙·추수진 작가의 신작을 소개했다. 네 명의 작가가 만든 무지갯빛을 여기에 조금 떼어와 본다.

너 같은 눈빛을 알아. 웃고 있지만, 속에서 뭔가 쏟아질 것 같은 눈빛이야.
주미경 〈얌마의 기둥 집〉 부분

주미경 작가는 놓치기 쉬운 눈빛과 그 속에 담긴 감정을 붙들어 노랫말 같은 문장으로 작품을 빚어낸다. 그의 동화 〈얌마의 기둥 집〉에서 고양이 얌마가 그러하듯이. 벌에 쏘인 듯 동그랗게 부푼 코, 빨간 수염, 뾰족한 귀, 실룩한 잿빛 방둥이를 가진 얌마의 집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못다 한 말, 주저하느라 마음에만 간직한 속말을 담은 '작품들'이 가득하다. 얌마의 꼬리가 부드럽게 흔들리고 핀은 가슴을 묵직하게 짓누르던 이야기를 꺼낸다. "그런 생각하잖아.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하는 거. 아무리 가족이라도." 깊이를 알기 힘든 호수 같은 이야기, 집 둘레를 따라 핀 패랭이꽃 같은 다독임이 주미경 작가의 작품에 들어 있다. 우리 안에 가둬진 속마음, 겨우 가라앉힌 울음을 "말갛고/ 긴 손가락으로/ 찬 등을/ 둥글게/ 문지르고/ 문지르고/ 자꾸 문질러서"(〈빗방울 손가락〉) 끝내 터뜨리게 만든다.

금간 뒤/ 밖으로 나와/ 반뜩 되살아난다.

이상교 〈거울〉 부분

이상교 작가의 작품은 시간을 들여 필사하고 싶다. 낱말이 놓인 자리마다 뜻이 있고 숨이 있어서 그렇다. '좀' '조금'이라는 말 속에 숨은 '아주 많이' 아프고 속상한 어린이의 마음을 들려주는 동시 〈엄마께〉는 "털어놓으니 좀/ 나아요./ 이제는 괜찮아요."라는 마지막 구절에 머물면서 어린 마음에 손을 가만 대본다. "제가/ 좀, 조금이라고 말하는 걸/ 그대로 믿지 마세요."라는 구절을 잊지 않는다면, 아직 말해지지 않은, 살펴야 할 마음이 거기 남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동화 〈어둔리〉의 할머니가 옆으로 누워 고양이 티슈와 눈맞춤을 하는 장면, "어느 때는 잠이 든 할머니를 티슈가 더 오래 지켜보았다"는 문장에서도 멈춰 지난 하루를 되짚어 볼 일이다. "날마다 비쳐들던/ 빛바랜 커튼 대신/ 찌든 때 벽 모서리 대신" 어떤 고통이나 슬픔을 녹여줄 환한 볕 같은 순간이 우리 안에서 "반뜩 되살아난다"(〈거울〉).

파란색이면 뭐 안 되니?// 안 될 건 없었다

이창숙 〈푸른 멸치떼〉 부분

이창숙 작가는 소개말에 "어떤 동화는 시로 바꾸니 생기가 돌았고, 어떤 시는 동화로 바꾸니 고소해졌다. 시 속에 이야기가 숨어 있고, 동화 속에 노래가 담겨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고 보니 그의 동시를 읽으면 냉동실 검은 비닐봉지에서 탈출해 "바다로 간 눈부시게 파란 멸치들"(〈푸른 멸치떼〉)이나 "숨을 할딱이며/ 지구 어항 속을 걷는/ 사람 물고기들"(〈황사〉)을 주인공으로 하는 길고 긴 이야기를 상상하게 된다. 동화 〈악마의 검을 뽑아라〉의 주인공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전염병이 닥친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이다. 학교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는 어린이들 앞에 나타난 도깨비 도해는 "잘 들어. 이제부터 할 일이 있어"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야기, 익숙한 일상의 풍경을 뒤집는 이창숙 작가의 동화적 상상력과 언어적 고민 덕분에 현실을 바꿔나갈 무궁한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는다.

나무는 눈물을 꽁꽁 뭉쳐/ 단단한 씨앗을 만든대

추수진 〈눈물별똥나무〉 부분

추수진 작가의 동시 두 편과 동화 한 편은 각기 떨어진 몸을 가졌지만 "뾰족한 부리를 맞댄"(〈한지 조각보〉) 채 유기적인 흐름과 감정을 느끼게끔 한다. 자신이 펼친 조각보에 조각난 마음들이 어린 새처럼 날아와 앉았다 가기를 바라는 작가의 위로가 전해진다. 동화 〈일곱 번째 규칙〉의 서현이는 동생 현수를 살뜰하게 보살핀다. 암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 동생에게 '숙제 뚝딱 준비물 착착' '동작 그만' '싹싹 씻고 치카' 등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달아 지켜야 할 일을 일러주기도 한다. 하지만 괜찮지 않은 날도 있다. 누나 말에 뾰족하게 대꾸하는 현수의 날도 있고, "난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꾹꾹 눌러온 눈물이 터지는 서현이의 날도 있다. 그런 누나의 등을 토닥이는 현수의 작은 손과,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서는 서현이의 손을 추수진 작가는 비춘다. 그 빛이 읽는 이의 조각난 마음 틈새로 부드럽게 스민다.

글 **남지은** [비유] 편집자 | 사진 제공 **웹진 [비유]**

연극in

이런_가수_또_없어요.wav

환대의 조각들 2021 〈MC.mama 팬미팅 나를 환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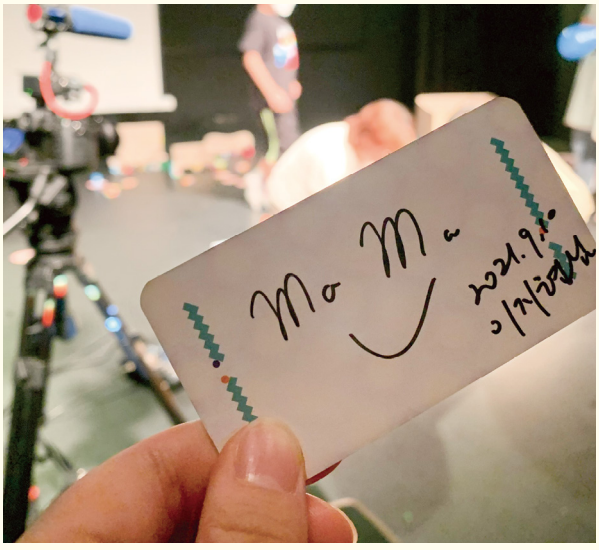
#장르 #얼터너티브_가내수공업_마마스타일

MC.mama의 음악을 어떤 장르로 정의할 수 있을까? 가사·멜로디·리듬·뮤직비디오·마케팅·유통, 심지어 팬미팅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제도권 주류 음악계의 그것과 닮은 구석이 없다. 히트곡조차 한 번 접하기 쉽지 않지만, 마마의 음악은 한번 들으면 결코 쉽게 잊을 수 없는 마력이 있다. 일상에서 살아 숨 쉬는 가사, 자조적이고도 유쾌하고 이따금 낭만적 삶의 태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다가 어느새 따라 부르게 만드는 중독성 높은 후렴구까지. 8년 전 화장실에서 1집을 녹음하며 시작된 그녀의 음악을 장르로 말하자면, 기존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의미에서의 '얼터너티브', 집이라는 장소성과 가족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일상생활을 소재로 만드는 '가내수공업'의 성격을 띤 마마의 고유한 스타일이라고 하겠다.

#환대 #정성껏_후하게_대접함

무대 위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 앞이 잘 안 보인다며 때때로 다른 PPT 페이지를 클릭해 보여주던 마마는, 사인회에 줄을 선 팬을 보고 깜짝 놀라 당황하면서 자신을 아는 지인 외에 새로운 팬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며,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오신 거냐고 팬들에게 되묻는다. 이내 평정을 되찾은 마마는 오늘을 위해 집에서 개발하고 연습했다며, 직접 준비한 사인지와 (DJ.ho가 말하길 "MC.mama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된) 플래카드 위에 웃는 얼굴의 'ma‿ma' 모양 사인을 정성껏 그려준다. 마마의 앞날을 응원하고, 팬으로서 보답하는 일은 커피차 조공처럼 거창한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다. 마마는 자신의 소원인 '가수 정승환과의 콜라보'를 해시태그로 독려하고, 유기동물 보호소에 후원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마마의 보답은 팬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 DJ.ho는 극장 앞 가게에서 마마와 함께 고른 드라이플라워 다발을 들고 객석으로 올라가 팬에게 하나하나 나눠준다. 마마는 스스로 말하길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이 많다고, 다음에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겠다고 제안한다.

성북마을극장에서 열린 MC.mama의 공연



웃는 얼굴의 mama 사인을 받았다.

#산책

마마의 선물을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이브로 발표한 신곡 두 곡을 비롯해 팬미팅의 모든 과정을 손수 준비하고 팬에게 건네준 MC.mama의 넉넉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그리고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환대의 사전적 의미를 말 그대로 체감한다. '나를 환대하라'라는 거창한 팬미팅 제목과 달리, 마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환대를 캐리어에 꾹꾹 담고 실어와 꺼내 보였다. 그러니까 마마의 환대는 손에 잡히지 않는 관념 덩어리 뜬구름이 아니라, 손수 누군가를 맞이하고 정성껏 베풀어주는 태도 그 자체다. 그리고 얼터너티브 가내수공업 마마 스타일 뮤직 또한, 자신을 둘러싼 매일의 생활과 관계 사이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이를 환대하는 삶의 방식이다.

아직도 여전히 잘 사용하는 유선 이어폰을 가방에서 꺼내, 마마의 2집 앨범 수록곡 〈산책〉을 들으며 걷는다. 차분한 멜로디와 함께 바스락거리는 걸음 소리가 들리고, MC.mama가 느린 속도로 랩을 이어간다. "천천히 걷는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잠시 앉아 쉬어본다. 넘쳐나는 것들을 나눠 갖기 위해서는 왜 많은 이유가 필요할까" 별다른 이유 없이 넘쳐나는 마음을 한껏 보답받은 팬으로서, 마마의 노래는 꼭 직접 들어보시기를 권한다. 이런 가수 또 없어요.

*MC.mama의 음악은 soundcloud.com/mc_mama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환대의조각들 2021
〈MC. mama 팬미팅 나를 환대하라〉
일시 2021. 9. 10
장소 성북마을극장
진행 MC.mama
주관/주최 다이애나랩
협력 성북마을극장 인포숍카페별꼴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 fragments2021.ink/#/

글·사진 **이지현** 드라마투르그. 이따금 일대일 공연을 만든다. 일상과 연극을 조금씩 교차시키며 살아가는 편이다.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연극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평구 자택 ©Kenn. 김병구

웹진 [춤:in]

춤+여기

우리 곁에 있지만 있지 않은 유령처럼 모두 다 다른 상상을 할 수 있는 춤

고스트그룹 김혜윤+류진욱

당신은 누구입니까?

김혜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용 작업을 하는 김혜윤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고, 추상적 이야기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류진욱 창작자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류진욱입니다. 무용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사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안무자·무용수·선생님보다는 '창작자' 류진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스트그룹Ghost Group이라는 이름은 각자가 생각하는 유령의 형상이 다른 게 예술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관객마다 다르게 느끼고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가변적이고 추상적인 예술을 구체화하자는 의미로 고스트그룹을 만들었어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류진욱 이곳은 저희가 새로 이사 온 집이에요. 둘 다 집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집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가족을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집이니까요. 그래서 소중한 공간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김혜윤 저는 사실 집에 대한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됐고, 제 공간이 생기면서 집으로부터 충만함과 안전함을 느끼게 됐죠. 부부가 함께 활동하니 작업 공간과 집의 경계가 상당히 무너졌어요. 연애할 때는 같이 작업을 하다가도 각자의 집으로 가면 끝이었는데, 같이 살게 되니 집에 와서도 작업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베란다 거울을 보며 듀엣 동작을 연습하기도 하고요. 방만 하나 더 있으면 연습실을 만들 것 같아요.(웃음)

이곳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김혜윤 춤이 이곳에서 발견되기보다는 춤을 추기 위해 구상할 때 이 공간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안과 밖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려면 저 스스로와 솔직한 면담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집이 저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솔직함을 내보일 수 있게 해요. 넌 무엇을 하고 싶고, 왜 하고 싶은지 이야기가 오가는 장소죠.

류진욱 저는 차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부른다든지, 갑자기 혼잣말을 한다든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런 행동은 차에 오직 저 혼자만 있어 할 수 있는데요. 온전히 개인적 장소니까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히 제 시간을 갖는 곳이고, 춤이 아니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무엇이든 마음껏 하며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죠. 조만간 모므로살롱에서 개최할 사진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웃음)

취재·정리 **김연임** 웹진 [춤:in] 편집장

고스트그룹 김혜윤+류진욱 고스트그룹은 희미하게 빛나며 실제 형태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 Ghost에서 착안해 만든 그룹이다. 어떠한 실체가 없는 희미한 추상적 개념을 다양한 이미지와 새로운 움직임으로 구체화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그룹을 만들었다.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는 예술의 가변성에 관심을 가지고 주제·움직임·댄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만들며 관객과 소통하고자 한다.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Calendar

11

Mon	Tue	Wed
1 ● 전시 〈PARROBOT〉(~11. 7) ● 전시 〈서교예술실험센터〉(~11. 20)	**2** ● 공연 〈루덴스 스트링 콰르텟 제4회 정기연주회〉 ● 공연 〈피아니스트 최희연 독주회〉 ● 뮤지컬 〈블랙메리포핀스〉(~11. 28) ● 전시 〈지속, 그 변화 속으로〉(~11. 26) ● 전시 〈워킹 메들리〉(~11. 2) ● 전시 〈축적된 자리〉(~11. 14)	**3** ● 공연 〈김윤정 피아노 독주회〉 ● 무용 〈1687〉(~11. 4) ● 연극 〈만 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마디〉(~11. 7) ● 연극 〈보더라인〉(~11. 9) ● 전시 〈출타행〉(~11. 15) ● 전시 〈Song of NATURE〉(~11. 8) ● 전시 〈도로시 엠 윤: 44개 색동 요술봉과 색동아우라 II〉(~11. 14)
8 ● 뮤지컬 〈라스 올라스〉 ● 공연 〈서교예술실험센터〉	**9** ● 공연 〈임경원 첼로 독주회〉 ● 뮤지컬 〈달은 오늘도 나를 내려다본다〉(~11. 10) ● 연극 〈어때서〉(~11. 11) ● 뮤지컬 〈오늘하루〉(~11. 14)	**10** ● 공연 〈장유진 바이올린 연주회〉 ● 연극 〈죄와 벌〉(~11. 14) ● 〈2021 서울거리예술축제〉(~11. 14)
15 ● 공연 〈소프라노 최현진 독창회〉 ● 전시 〈재활용의 날〉(~11. 21)	**16** ● 공연 〈심산아트홀 화요콘서트〉 ● 연극 〈더 드레서〉(~2022. 1. 1)	**17** ● 무용 〈백조의 호수〉 ● 포럼 〈놀이하는 예술가들: 유아, 예술가, 부모〉
22 ● 공연 〈예프게니 키신 피아노 리사이틀〉	**23**	**24** ● 연극 〈G급감성〉(~11. 24) ● 공연 〈서교예술실험센터 공공화장실 프로젝트〉(~11. 28)
29	**30** ● 연극 〈괴담〉(~11. 30) ● 공연 〈오민정 오보에 독주회〉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서울예술교육센터
- 예술청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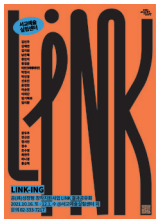
※해당 공연·전시·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Thu	Fri	Sat	Sun
4 ● 무용 〈꽃잎이 내리던 그 시절〉 ● 연극 〈5분간의 청혼〉(~11. 7) ● 뮤지컬 〈아이 캔 플라이〉(~11. 28) ● 행사 〈2021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최종 성과 공유〉(~11. 13) ● 전시 〈EX-UP 1기 성과보고〉(~11. 21)	**5** ● 연극 〈내일 바다에〉(~11. 5) ● 공연 〈이지윤 비올라 독주회〉 ● 국악 〈달빛 마중〉 ● 연극 〈허길동전〉(~11. 14) ● 공연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11. 27) ● 뮤지컬 〈봄날의 곰〉(~11. 30) ● 기획프로그램 〈창고개방〉(~11. 21)	**6** ● 공연 〈최현아 피아노 독주회〉 ● 무용 〈야월삼경〉 ● 전시 〈법 앞에서〉(~11. 17) ● 공연 〈앙상블오푸스의 그 남자, 그 여자 이야기〉 ● 연극 〈목각인형콘서트〉(~11. 7) ● 연극 〈슈미〉(~11. 14) ● 공연 〈2회 판토마임 인 서울〉(~11. 7) ● 워크숍 〈알.소.게.팅〉(~11. 7)	**7** ● 뮤지컬 〈소춘대유희_백년광대〉(~11. 7) ● 연극 〈당신을 초대합니다〉(~11. 7) ● 무용 〈눈맞춤〉 ● 연극 〈모화〉 ● 전시 〈벡사시옹〉(~11. 7)
11 ● 무용 〈다녀와요, 다녀왔습니다〉 ● 전시 〈HOI-POI: Japanese Contemporary Painters〉(~11. 28)	**12** ● 무용 〈돈키호테〉(~11. 13) ● 공연 〈청교도〉(~11. 14) ● 뮤지컬 〈두근두근 움스프랜즈〉(~11. 14) ● 뮤지컬 〈이른 봄, 늦은 겨울〉(~11. 24) ●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11. 28) ● 전시 〈언폴드 엑스〉(~11. 28)	**13** ● 공연 〈마티스 더 재즈〉 ● 공연 〈2021 구로 클래식 페스타〉 ● 전시 〈들리는, 들을 수 없는〉(~11. 13) ● 공연 〈붉은방: THE RED ROOM〉 ● 공연 〈슈뢰딩거의 공연〉 ● 공연 〈서교예술실험센터〉 ● 워크숍 〈알.소.게.팅〉	**14** ● 연극 〈제6회 단단페스티벌〉(~11. 14) ● 연극 〈로드킬 인 더 씨어터〉(~11. 14) ● 연극 〈로테/운수〉(~11. 24) ● 뮤지컬 〈브라더스 까라마조프〉(~11. 14) ● 공연 〈구스타프 말러를 위하여〉 ● 공연 〈최인영 플루트 독주회〉 ● 전시 〈토끼의 숨이 멎기 전 마고가 나타났다〉(~11. 24)
18 ● 연극 〈창수〉(~11. 28) ● 연극 〈이즈 갓 이즈〉(~11. 28) ● 전시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12. 1)	**19** ● 뮤지컬 〈툴스〉(~11. 20) ● 연극 〈스프레이〉(~11. 28)	**20** ● 국악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 공연 〈귀멸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콘서트〉 ● 공연 〈길 위의 천국〉(~11. 21) ● 공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21** ● 뮤지컬 〈이토록 보통의〉(~11. 21) ●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11. 21) ● 연극 〈자화상〉(~11. 21) ● 연극 〈줄리엣과 줄리엣〉(~11. 21) ● 연극 〈리어왕〉(~11. 21)
25 ● 연극 〈울트라월드〉(~11. 27) ● 전시 〈예술 놀이 Lab TA 결과 공유〉(~12. 16)	**26** ● 공연 〈낭만의 절정〉 ● 공연 〈스티브 바라캇 내한공연〉 ● 뮤지컬 〈고향의 봄〉(~11. 27)	**27** ● 뮤지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11. 27) ● 뮤지컬 〈메이사의 노래〉(~11. 27) ● 공연 〈해설이 있는 피아노 교수음악회〉 ●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 뮤지컬 〈산타와 빈양말〉(~12. 31) ● 전시 〈살바도르 달리: Imagination and Reality〉(~2022. 1. 21)	**28** ● 전시 〈블루 룸〉(~11. 28) ● 전시 〈비욘더로드〉(~11. 28) ● 뮤지컬 〈트레이스 유〉(~11. 28) ● 뮤지컬 〈피노키오〉(~11. 28) ● 연극 〈제6회 도담도담 페스티벌〉(~11. 28)

전시 〈들리는, 들을 수 없는〉

원성원 작가가 구축한 서사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여러 유형의 관계와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다시 말해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류와 변방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일시 10월 5일(화)~11월 13일(토) 오전 11시~오후 6시(월·일 휴관) | **장소**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 **관람료** 무료 | **문의** 02-541-5701



2021 서교예술실험센터 공성장형 창작지원사업 '링크' 결과 공유회 〈LINK-ING〉

서교예술실험센터 공共성장형 창작지원사업 '링크LINK'의 결과 공유회 〈LINK-ING〉이 개최된다. 총 23인(팀)이 참여하는 공유회는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다.

일시 10월 16일(토)~12월 1일(수) 오전 11시~오후 8시(월 휴관) |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온라인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33-7217

뮤지컬 〈소춘대유희_백년광대〉

죽어서도 극장을 떠나지 못하던 백년광대와 오방신은 어느 날 텅 비어버린 공연장을 마주한다. 역병으로 공연이 연기된 백 년 전처럼 공연이 중단된 것. 한탄하는 후배들의 애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시공간이 무너진 틈새로 백 년의 시간이 쏟아져 나온다.

일시 10월 22일(금)~11월 7일(일) 화~금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월 휴관) | **장소** 국립정동극장 | **관람료** 4만 원 | **문의** 02-751-1500

연극 〈내일 바다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실화를 모티프로 각색된 연극이다. '나미에 역'과 '후타바 역'을 오가며 펼쳐지는, 주인공 세미와 나츠의 동화 같은 이야기를 통해 잃어버린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시 10월 28일(목)~11월 5일(금) 수 오후 4시·8시, 화·목·금 오후 8시,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2시(월 휴관) | **장소** 연희예술극장 | **관람료** 4만 원 | **문의** 010-3441-5877

전시 〈From 0〉

팬데믹 상황 이후 모든 것이 0이 된다. 0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형상을 시각화했다.

일시 11월 2일(화)~24일(수) 화~일 오전 11시~오후 7시(월·공휴일 휴관) | **장소**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관람료** 무료 | **문의** 02-3477-2074

연극 〈만 마디를 대신하는 말 한마디〉

신중국 성립 전과 성립 후. 전생·이생·백년에 걸쳐 온갖 성씨, 온갖 직업, 온갖 일, 온갖 모습의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을 담은 류전원의 장편소설을 머우썬이 각색한 작품이다.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 현재 우리의 비극적 상황을 은유와 해학으로 드러낸다.

일시 11월 3일(수)~7일(일) 수~금 오후 8시, 주말 오후 7시 | **장소** 라이트 하우스 | **관람료** 3만 원 | **문의** 02-3668-0007

2021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최종 성과 공유 행사 〈그리고 라이브〉

MEET Mullae Effect는 문래창작촌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다. 최종 성과 공유 행사를 통해 2021 MEET에 선정된 작가들의 그룹 전시와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VR 기기로 전시장 내부 모습을 촬영했고, 참여 작가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일시 11월 4일(목)~13일(토) 오전 10시~오후 8시 | **장소** 문래예술공장, 유튜브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676-4300

2021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EX-UP 1기 성과 보고〉

'EX-UP'은 신진 작가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증대를 위해 진행한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성과 보고를 위한 전시로 EX-UP 1기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그룹 전시로 개최한다.

일시 11월 4일(목)~21일(일) 수~금 오후 1시~7시, 주말·공휴일 오후 1시~6시(월·화 휴관) | **장소** 상업화랑 문래점 | **관람료** 무료 | **문의** 0507-1342-3585

뮤지컬 〈봄날의 곰〉

아무 말썽도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교실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날벼락 아니, 봄날의 곰. 무섭기도 하고 수줍음이 많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갈색 몸을 가진 봄날의 곰과 시원이가 전학을 오면서 조용했던 교실은 상상도 못 할 만큼 변한다.

일시 11월 5일(금)~12월 26일(일) 금~일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월~목 휴관) | **장소** 대학로 세우아트센터 | **관람료** 4만 원 | **문의** 070-7542-5089

2021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스튜디오 QDA 마임 2회 판토마임 인 서울〉

국내 대표 마임 배우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다. 팬데믹 시대에 일상 회복을 그리는 주제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쾌한 상상을 마임으로 풀어나간다.

일시 11월 6일(토)~7일(일) 오후 6시 | **장소** 스튜디오 QDA | **관람료** 1만 원 | **문의** 010-9819-8992

국악 〈눈맞춤〉

소리꾼 고영열이 들려주는 그의 사계절 이야기. 그는 동서양 음악을 오가며 남다른 음악적 결을 보여주는 소리꾼이다. 평소 그가 무대와 음원을 통해 들려준 명곡을 공연에서 선보인다.

일시 11월 7일(일) 오후 2시 | **장소** 서울돈화문국악당 | **관람료** 4만 4천 원 | **문의** 02-3210-7001

2021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리사익 전시 〈HOI-POI: Japanese Contemporary Painters〉

작품의 이동 경로를 마치 만화 《드래곤볼》에서 '펑'하고 나타나는 '호이포이 캡슐'에 비유해 일본의 젊은 회화 작가 3인을 소개하는 기획 전시이다. 지역 소규모 공간 단위의 교류 프로젝트로 동시대 청년 작가의 국제 활동 무대를 선사한다.

일시 11월 11일(목)~28일(일) 오후 1시~7시(월 휴관) | **장소** 공간사일삼 | **관람료** 3천 원 | **문의** 010-9821-0778

무용 〈다녀와요, 다녀왔습니다〉

자신의 몸을 떠났다가 돌아온 샤먼 자신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이자, 서로에게 건네는 인사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안부를 전하는 모든 살아가는 사람과 떠나간 사람을 향한 춤의 대화이다.

일시 11월 11일(목)~13일(토) 목·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3시 |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 **문의** 02-2280-4114

〈서울거리예술축제 2021〉

도심에서 진행하는 서울의 대표 예술 축제가 열린다. 거리극·현대연희·미디어아트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노들섬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선보인다.

일시·장소 11월 12일(금)~14일(일) 노들섬 | 11월 10일(수)~14일(일) 문래·용산·서대문 | **관람료** 무료(사전예약 필수) | **누리집** ssaf.or.kr | **문의** 02-758-2153

2021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작 김진 전시 〈토끼의 숨이 멎기 전 마고가 나타났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모습을 탐구하고 이를 시각예술로 표현한 작품을 소개하는 설치미술 전시이다.

일시 11월 14일(일)~24일(수) 오후 1시~7시(월 휴관) | **장소** 스페이스나인 | **관람료** 무료 | **문의** 02-6398-7253

해설이 있는 발레 〈백조의 호수〉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이다. 무용수의 몸짓이 백조와 동화되고 마치 진짜 호수에서 춤추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일시 11월 17일(수) 오후 7시 30분 | **장소** 심산문화센터 반포심산아트홀 | **관람료** 1만 4천 원 | **문의** 02-3477-2805

2021 서울유아예술교육 콜로키움 〈놀이하는 예술가들: 유아, 예술가, 부모〉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구성한다. 아직 학교도 다니기 전, 순수한 유아들의 놀이에는 풍부한 예술적 표현 요소가 들어 있다. 유아들의 놀이에 예술가가 함께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그 고민과 실험, 그리고 공공의 역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다.

일시 11월 17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예술청 다목적홀 | **관람료** 무료 | **문의** 02-758-2122

'예술놀이 Lab' TA 결과 공유 전시 〈오픈 랩(OPEN LAB)〉

어린이·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 구현을 위해 조성된 국내 최초 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6명의 예술가와 어린이, 청소년, 지역 주민들이 함께한 예술 경험의 결과를 전시 형태로 선보인다.

일시 11월 25일(목)~12월 16일(목) 오전 10시~오후 6시(일 휴관) | **장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관람료** 무료 | **문의** 02-2697-2600

DIGITAL STORY-TELLERS

Unfold X 2021 **2021.11.15.-11.28.**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뮤지엄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주관 서울문화재단 협업기관 · 기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파라다이스문화재단 LG유플러스 / www.unfoldx.org

서울문화재단 Seoul Design Foundation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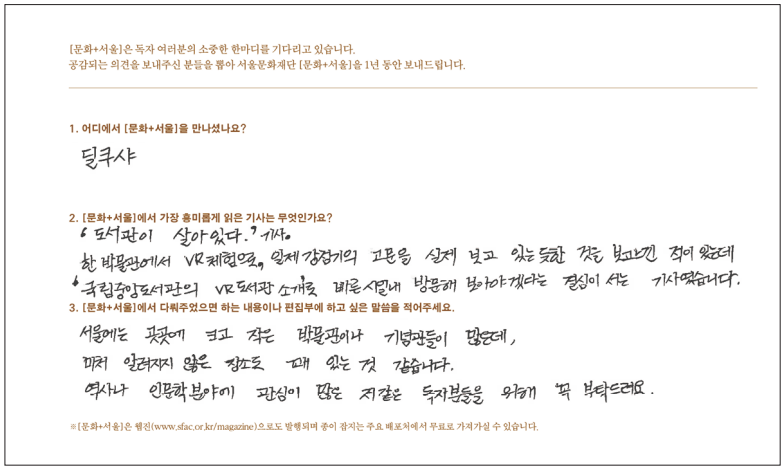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정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금천예술공장,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희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대학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한국공연예술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을 뽑아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딜쿠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도서관이 살아있다.' 기사.
한 박물관에서 VR 체험으로, 일제강점기의 고문을 실제 보고 있는 듯한 것을 보느낀 적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의 VR 도서관 소개'로 빠른 시일내 방문해 보아야겠다는 결심이 서는 기사였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서울에는 곳곳에 크고 작은 박물관이나 기념관들이 많은데,
미처 알려지지 않은 장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나 인문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저 같은 독자분들을 위해
꼭 부탁드려요.

※ [문화+서울]은 웹진(www.sfac.or.kr/magazine)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잡지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엽서

김은혜 님(서울시 노원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딜쿠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도서관이 살아 있다' 기사. 한 박물관에서 VR 체험으로, 일제강점기의 고문을 실제 보고 있는 듯한 것을 보고 느낀 적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의 VR 도서관 소개'로 빠른 시일 내 방문해 보아야겠다는 결심이 서는 기사였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서울에는 곳곳에 크고 작은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많은데, 미처 알려지지 않은 장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나 인문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저 같은 독자분들을 위해 꼭 부탁드려요.

편집 후기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소설엔 마음을 녹이는 소설을.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가을엔 무해한 것을 잔뜩 '채집'해 마음이 해로울 때 하나씩 꺼내먹으려고요.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이 마음에 담겨
영영 이 마음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한다면 좋겠다.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시원한 저녁 바람에 기분이 좋아져' 마냥 걸을 수 있는 날은 너무 짧습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겨울은 천천히 오고 남은 2021년도 천천히 가면 좋겠습니다. **이아림 객원 기자**

책은 재밌습니다. **장영수 객원 기자**

서울거리예술축제

SEOUL STREET ARTS FESTIVAL 2021

2021.11.12.-14. 노들섬

11.10.-14. 문래·용산·서대문

주최·주관 예술의전당 서울특별시

김하경 〈Jasper〉
도자 I 29×23×8cm I 2020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ISSN 1739-774X